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0호 【루계 제25383호】 주체105(2016)년 8월 27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정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끝없이 베풀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숭고한 뜻을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으로 들끓는 격동적인 시기에 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소집하도록 해주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25일에 전달되였다.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이 어린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은 대회참가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청년중시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으로 키워주시며 온 세상에 높이 내세워주시는 백두산청년강국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청년들의 불패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는 주체조선의 청년대축전으로 빛내일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영웅청년대군의 기상과 본때를 만천하에 떨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감으로써 당의 믿음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할 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대표증 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이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았다.

한없이 숭고한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은정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대표증이 대회참가자들에게 수여되였다.

여기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영상을 언제나 우러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 만리마시대의 전위투사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당의 기대가 담겨져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대표증을 수여하는 모임이 25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수여사를 하였다.

그는 자나깨나 위대한 수령님들을 절절히 그리는 청년전위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대표증과 방청증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대회참가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어 백두산청년강국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다는 절대적인 신념과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을 안고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주체적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진정히 옹호고수하고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이 모셔져있는 대표증과 방청증을 받아안은 참가자들은 우리 청년들을 당의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오늘의 이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전, 총돌격전에서 조선청년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백두산청년대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힘있게 과시해나갈 불타는 의지를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9일과 2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통신 쁘라보르스끼 뻬보르조르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신 소식을 전하였다.

세네갈신문 《러 보퓰래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네팔인터네트잡지 《네팔 루메이》와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은 이 소식과 함께 대동강태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로씨야, 민주꽁고, 도이췰란드의 인터네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보시였다.

만민이 칭송하는 불세출의 선군령장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 열렬히 칭송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속에서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아따나스 이와노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그이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조선을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로 전변시키시였다.

력사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고 인류의 희망의 등대인 사회주의조선을 굳건히 수호하신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가장 위대한 업적중의 하나이다. 김정일동지는 만민이 칭송하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다.

수리아 디미스끄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씨베르 발롤은 김정일각하께서는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조선인민군을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시였다, 선군정치야말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현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정치방식이며 백승의 귀치이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김정일각하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중국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대표단 단장 김력룡은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금치 못해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로 6.15통일시대를 안아오시고 민족번영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은 후손만대의 복락을 담보하는 억년토대이다.

온 겨레는 총대로 민족운명개척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주신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력사를 영원토록 잊지 않을것이다.

총련일군 허명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수한 야전복차림으로 최전연의 칼벼랑길과 험한 령길을 끊임없이 넘으시며 전선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어려와 격정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은 인류정치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애국, 애족, 애민의 헌신의 길이였다.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을 수놓아오신 김정일장군님은 겨레의 심장속에 위대한 선군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조선중앙통신】

격동의 시대를 청년판으로 들끓게 하는 맹장대군의 힘찬 발걸음
200일전투기간 각지 청년들 돌격대활동으로 수십개 대상건설 완공, 500여대의 설비, 기대들 《청년》호로 명명, 1만 7,000여명이 4년, 3년, 2년분, 년간인민경제계획 완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받들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청년대군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천지를 진감하고있다.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창조한 영웅청년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작렬하는 폭약과 같이 일격에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울 조선청년의 혁명적기상과 투지가 조국땅 그 어디서나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며 충정의 200일전투장들을 청년판으로 들썩이게 하고있다.

위대한 당의 호소를 피끓는 청춘의 심장마다에 쪼아박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청년강국의 대축전으로 빛내일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만리마속도창조의 선봉에서 줄달음쳐온 청년대군의 과감한 투쟁속에 충정의 200일전투기간 수십개의 대상건설이 완공되고 500여대의 설비, 기대들이 《청년》호로 명명되였으며 4년, 3년, 2년분, 년간인민경제계획완수자가 1만 7,000여명이나 배출되였다.

격동의 시대를 청년판으로 들끓게 하는 이 힘찬 발걸음은 200일전투의 담당자도 우리의 믿음직한 열혈청춘들이며 200일전투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우리 혁명대오를 강화해나가는데서 주력을 이루는것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인 우리 청년들이라는것을 뚜렷이 증시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혁명투쟁의 전구들마다에서 청년골격대, 청년근위대,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여 그 어디나 청년판으로 흥성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하여 총공격할데 대한 당 제7차대회의 열렬한 호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다시한번 신들메를 힘껏 조여매고 새로운 투쟁의 발걸음을 용감무쌍히 내디딘 청년대군의 혁명적열의는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더욱 거세차게 분출되였다.

온 나라의 대고조격전장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향한 청년들의 대중적영웅주의운동, 대비약, 대혁신의 사회주의경쟁운동으로 세차게 들끓었다.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젊은 가슴들에 달아주고싶다고 하시며 백두산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로, 백두산청년대강국의 주인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믿음과 사랑은 지구도 들 억척의 지지점이 되고 신념과 배짱,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 되여 총진군대오의 전렬에 선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돌격정신을 무섭게 폭발시켰다.

《백두의 칼바람에 몸을 말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라는 투쟁의 구호가 청년전위들의 전진의 앞길에 위훈의 기치로 힘차게 나붓겼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일군들모두가 전인기가 되여 청년대중의 앞장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200일전투장마다에서 만리마시대의 영웅신화가 련발적으로, 다발적으로 창조되게 하였다.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은 대건설전역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청년돌격대활동을 과감히 벌리며 수십개의 대상들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우고 개건하였다.

인민의 최고리상실현을 위해,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이 나래치는 려명거리건설장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선봉에 선 열혈청춘들의 영웅적투쟁정신과 전투적기백이 과시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받들고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된 리수복영웅의 영웅적돌격정신으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려명거리건설을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공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제일 큰 대상인 70층초고층살림집골조공사를 74일만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당의 품속에서 전통있는 부대, 강력한 건설부대로 자라난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이 려단사이, 대대사이 사회주의경쟁의 불바람을 일으켜 맡은 대상의 골조공사를 70여일만에 결속하였다.

우리 당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일념안고 이들은 벽체와 층막뒤틀 조립을 단번에 진행하는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여 충정의 전투기록장에 자랑찬 위훈을 아로새기였다.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값높은 청춘의 자욱을 새겨갈 애국열의로 가슴 불태우는 온 나라 청년들의 마음이 려명거리건설장으로 달려오는 속에 수많은 야간지원청년돌격대원들이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한달동안에만도 3,000여m^3의 버력 및 혼석과 180여t의 세멘트를 운반하는 등 방대한 과제를 해제꼈다.

성스러운 백두전구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백두청춘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과 함께 수도의 청년들도 힘있는 돌격대활동으로 김일성경기장과 중앙로동자회관, 룡악산샘물공장 용기직장 등을 개건하는데서 선봉적역할을 하였다.

강계정신이 창조된 자강땅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대진군의 승전포성을 련이어 울리였다.

무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자강의 정신력으로 뚫고나가며 그 어떤 공사도 페기있게 해제끼는 젊은 힘에 떠받들려 홍주청년3호발전소와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이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섰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맞으며 훌륭히 개건된 사리원청년경기장에도 황해북도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이 흘린 청춘의 구슬땀이 슴배여있다.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미더운 청년들에 의해 온성땅에 양어사업소가 번듯하게 일떠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젊음으로 약동하고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는 조국에 활력을 부어주며 우리 청춘들이 대고조전구들에서 마련한 창조물마다에 청년명칭이 자랑스럽게 빛나고있다.

한가지 일을 해도 우리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청년맛이 나게 해놓으려는 웅대한 포부와 진취성을 지니고 통성과 락원의 청년들이 자체의 힘으로 생산한 열뽐프와 압축기, 유압식굴착기를 비롯한 10여대의 설비들에 《청년》의 이름이 새겨졌다.

함흥모방직공장의 기술혁신청년돌격대원들과 청년들이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마련한 설비가 《청년》호로 명명되어 충정의 200일전투성과를 더해주고있다.

당의 국산화정책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염색생산공정확립에서 나서는 설비제작을 자진하여 맡은 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100% 국산화된 고압직물염색기를 창안제작하고 다기능화된 염색기로 완성함으로써 생산원가를 훨씬 줄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라선시안의 청년들이 개조한 선봉수산사업소의 현대적인 275마력고기배가 《청년》호로 명명된것을 비롯하여 청년들의 로력적위훈이 깃든 여러척의 고기배들이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고있으며 이들의 성과는 전국의 청년동맹조직들에 일반화되고있다.

지난 6월 해주련결농기계공장을 비롯한 황해남도안의 청년들이 새형의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집단적혁신운동의 불길높이 만든 수십대의 분조용벼탈곡기와 동력식심층시비기들이 《청년》호로 명명된데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려는 우리 청년들의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이 어려있다.

남포시의 청년들이 부족되는 부분품과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여 훌륭히 개조한 무궤도전차들에도 청춘의 이름이 빛나고있다.

우리의 청년들은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시대의 물음에 사회주의증산경쟁의 혁혁한 성과로 대답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한 온 나라 청년들의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나래쳐 충정의 200일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인민경제계획완수자대렬이 계속 늘어나 4년, 3년, 2년분, 년간계획완수자수는 1만 7,000여명에 달하고있다.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의 하나인 석탄공업부문을 지켜선 청년돌격대원들이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인민경제계획수행의 앞장에 섰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50여개의 청년돌격대들이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데 이어 200일전투계획을 청년동맹 제9차대회전으로 끝낼 높은 목표밑에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전투첫날부터 이들은 막장마다에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사회주의경쟁도표를 게시하고 맹렬한 생산돌격전을 벌리였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청춘의 위훈을 자랑스럽게 빛내여온 전세대 청년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득장청년탄광, 서창청년탄광, 제남탄광, 월봉탄광의 차광수청년돌격대, 김혁청년돌격대원들이 지난 8월 10일까지 200일전투목표를 점령한 승리자의 긍지안고 청년동맹 제9차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섰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수십명의 준마처녀들이 3년, 2년분 계획완수자대렬에 들어섰으며 정량의 3배에 달하는 직기를 다루면서 혁신의 불꽃을 날려온 사리원방직공장의 3명의 처녀직포공들이 4년분 계획을 완수하는 놀라운 혁신을 창조하였다.

원산구두공장과 류원신발공장의 120여명의 청년들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높은 생산실적으로 빛내일 충정을 안고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벌려 년간계획완수자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천리마시대의 신화를 창조하며 날바다를 정복한 전세대 처녀어로공들처럼 당이 제시한 수산물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동서해의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들이 년간물고기잡이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높이 울리는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청년어로공들의 경쟁열의를 더욱 불러일으켰다.

한몸이 그대로 그물이 되고 추진기가 되여 황금해의 새 력사를 빛내여갈 열의드높이 어로전투를 벌려온 남포와 한천, 가마포수산사업소 10여척의 《청년》호고기배들에서 물고기잡이의 과학화를 실현함으로써 7월까지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젊은 힘이 용솟음치는 청년들이 전형을 창조하고 그것을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안아온 이 자랑찬 성과들은 온 나라를 새로운 만리마속도창조에로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백두의 칼바람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펄펄 날리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인 우리 청년들이 충정의 200일전투장마다에서 울리는 승전고는 청년들을 만리마시대의 주인공으로 총진군대오의 전렬에 내세워 사회주의강국의 창창한 미래를 앞당겨가는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당을 옹위하는 천군만마가 되여 최후승리를 향한 전인민적총진군을 힘차게 선도해가는 미더운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도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무궁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김정은청년강국의 기상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떨쳐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서해어장으로 새로 무은 종합봉사선단 출항
남포대경수산사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남포대경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종합적인 편의 및 의료봉사시설과 배수리설비를 갖춘 4층짜리 1호봉사선, 수백t의 연유와 먹는물을 실어나를수 있고 초급동도 할수 있는 2호봉사선을 동시에 무어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련이어 370마력 만능어선이 건조되고 속도가 빠른 긴급구조정까지 갖추어짐으로써 사업소는 이빠진 곳없이 없는 옹근 하나의 봉사선단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서해어장의 고기배들이 임의의 시간에 연유를 충분히 보충받을수 있고 배수리도 바다우에서 할수 있게 됨으로써 년간출어일수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물고기잡이실적을 높일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남포대경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뜻깊은 올해에 하나의 봉사선단을 새로 무을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웠다.

시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사업소초급당위원회에서는 종업원들을 만리마속도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배무이전투에서 련일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게 하였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철야진군속도를 높여 수백t급의 1호봉사선과 2호봉사선을 두달 남짓한 기간에 손색없이 무어내였다.

남포시당위원회와 와우도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이 배무이전투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사업소와 편판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봉사선들은 선 편리성, 선미학성이 구현된 만리마시대의 훌륭한 창조물로 완성되였다.

종합적인 편의 및 의료봉사기능, 배수리기능을 갖춘 1호봉사선 《분명-1》호와 연유 및 먹는물수송을 기본으로 하면서 끌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2호봉사선 《분명-2》호, 《황금해》계렬의 만능어선과 긴급구조정으로 구성된 새 봉사선단은 시험운행을 성과적으로 마치였다.

얼마전 사업소창립일을 맞으며 진수식을 의의있게 진행한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봉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25일 집중어로전이 벌어지고있는 서해어장으로 출항하였다. 사업소부두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 편판부문의 일군들이 출항의 배고동소리높이 울리며 바다로 떠나가는 봉사선단을 뜨겁게 환송하였다.

특파기자 주창선

전력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전진하는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500만 청춘들이여 더욱 용감하게, 대담하게, 질풍같이 내달려

자랑높이 휘날리라, 속도전청년돌격대기발이여

만리마시대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는 려명거리건설장은 지금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빛내일 충정과 위훈의 탑을 쌓아가는 청년전위들의 열의로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그 대오속에는 1970년대부터 우리 조국력사에 지울수 없는 위훈의 자욱을 긍지높이 아로새겨온 속도전청년돌격대의 기발도 힘차게 나붓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구상을 맨 앞장에 서서 실현해나가는 정규화된 전투적인 로력부대이며 보람찬 실천투쟁속에서 청년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우는 훌륭한 혁명학교입니다.》

우리 나라 청년돌격대운동에서 새로운 장을 펼쳐놓은 속도전청년돌격대!

이 충정과 위훈의 대오는 어떻게 태여나고 어떤 눈부신 성장의 자욱을 아로새겨왔던가.

주체64(1975)년 정초 어느날 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사업을 맡아보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력사적인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맞이하는 해에 사로청(당시)에서 설계한 사업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받들고 나라의 긴장한 수송문제를 푸는데 청년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문제를 설계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로청에서 새해사업을 옳게 작전했다고, 당의 의도를 맞혔다고 더없이 기뻐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벽에 걸려있는 조선지도앞으로 다가가시였다.

그리시고는 열정에 넘치시여 나라의 철도망건설과 관련한 우리 당의 휘황한 설계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였다.

잠시후 일군에게 수송전선뿐아니라 발전소와 공장, 탄광과 광산들도 더 많이 일떠세우고 바다를 막고 산을 떠옮기는 대자연개조사업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만년대계의 대건설을 다름아닌 피끓는 청년들, 당정책관철에서 언제나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청년들이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참으로 혁명하는 시대, 주체시대에 사는 우리 청년들의 두어깨우에는 대번영기에 들어선 우리 조국의 오늘과 래일이 걸어져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려있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은 감격과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는 일군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로청에서 청년돌격대를 무어가지고 한번 본때있게 내밀어보자고 하시면서 청년들이 들끓어야 전국이 들끓는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일군은 그이께서 자정도 훨씬 넘은 깊은 밤에 자기를 부르신 웅심깊은 의도가 뜨겁게 파고들어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무렵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맞는 뜻깊은 그해를 주체혁명의 년대기우에 찬란히 빛나는 해로 수놓으시려는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앞당겨 점령하도록 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리도록 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고조의 불바람이 세차게 불어치게 하기 위한 거대한 작전을 설계하고계시였다.

바로 이런 중대한 시기에 그이께서는 청년들에게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더없이 보람차고 중대한 사업을 맡겨주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조직하는 청년돌격대는 그 면모에 있어서나 활동방식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새이고 새로와야 한다고 하시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이번에 조직하는 청년돌격대는 한 대상물의 건설이 끝나도 해산할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면서 군대와 같이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정규화된 돌격대, 충분한 기술직수단들을 갖추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는 가장 위력한 돌격대로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조직되는 청년돌격대의 이름을 〈속도전청년돌격대〉라고 합시다.》** 라고 하시면서 이 이름은 시대정신에도 어울리고 청년들의 감정에도 맞을것 같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속도전! 진정 그 이름은 온 사회의 집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대건설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내놓으신 시대의 자랑찬 부름이였다. 속도전을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으로 규정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돌격대의 이름에 그 값높은 글발을 얹어주시니 청년일군은 이 세상 그 어떤 방대하고 어려운 일감도 단숨에 해제낄것만 같이 가슴이 달아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는 일군에게 새롭게 조직되는 속도전청년돌격대는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서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돌격대가 되여야 하며 청년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나가는 영예로운 정치부대가 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교시를 주시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자랑스러운 이름과 함께 그 성격과 사명을 그리도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의 가슴에 불덩이가 이글거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청년운동의 력사와 더불어 전투적위훈의 로정을 걸어온 청년돌격대운동을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킬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속도전청년돌격대운동을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신것이다.

속도전청년돌격대가 당정책관철에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돌격대가 되여야 한다는 그이의 가르치심에는 피끓는 청년들이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집단적인 혁신부대가 되여야 한다는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었다.

긴 겨울밤도 끝이 나고 어느덧 새날이 밝을무렵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간을 잊으신듯 정열에 넘치시여 지난 기간 청년건설자들의 투쟁경험에 대해서도 들려주시면서 앞으로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조직과 활동에서 자그마한 편향이라도 있을세라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속도전청년돌격대를 조직하는 사업은 사로청중앙위원회로부터 초급단체에 이르기까지 전동맹이 들끓는 가운데 활발히 벌어졌다.

전국의 청년들은 자기들을 영예로운 속도전청년돌격대에 받아줄것을 열렬히 탄원해나섰다.

어느날 돌격대를 꾸는 사업정형을 일일이 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속도전청년돌격대를 조직하는 사업을 청년사업과 청년돌격대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당창건 30돐을 맞는 올해를 새해벽두부터 혁명적대고조로 불끓게 하는 중요한 정치행사로 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뜻과 정력적인 령도속에 청년돌격대운동의 빛나는 새 장이 펼쳐지게 될 력사의 시각은 바야흐로 다가오고있었다.

감격도 새로운 주체64(1975)년 2월 16일, 뜻깊은 이날 김일성광장에서는 속도전청년돌격대조직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청년돌격대원들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건설장들에 떨쳐나설것을 궐기하는 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만세의 환호성이 광장을 진감하였다.

궐기모임이 있은 뒤 해불시위가 시작되였다.

2월의 밤하늘을 밝히는 불의 바다, 지심을 울리는 발구름소리높이 해불대오가 대하처럼 굽이쳐흐르는 장엄한 청년들의 철의 대오, 그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대한 충정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당이 안겨준 속도전의 위력한 무기로 대건설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조국땅우에 창조와 번영을 안아오려는 우리 청년들, 혁명의 새 세대들의 불타는 신념, 불굴의 기상을 과시하는 자랑찬 화폭이였다.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속도전청년돌격대!

속도전청년돌격대가 걸어온 자랑스러운 행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어버이사랑속에 값높은 위훈을 새기고 친혈육의 뜨거운 정속에 날과 달이 흐른 뜻깊은 력사였다.

이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인삼, 특용주사약을 청진-무산철도건기화공사에 참가한 청년돌격대원들이 무려 한달동안이나 맞았다는 사랑의 전설도 태여났고 구장-팔원철도전기화공사에 참가한 몇명의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이 무더기비로 불어난 강물때문에 위험에 처하였을 때 사랑의 직승기를 띄워 구원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였다.

언제인가는 평양의 온실에서 딴 첫물오이를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의 명절식탁우에 놓아주자고 비행기를 띄워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어찌 이뿐이랴.

창광원건설이 한창이던 어느날에는 몸소 건설장을 찾으시여 돌격대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일잘하는 동무들이라고 시대의 단상에 높이 내세워주시였고 돌격대원들을 위해 사랑의 제복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80(1991)년 4월, 완공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나오시여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과 함께 나무도 심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불멸의 화폭도 남겨주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이렇듯 각별한 사랑과 믿음속에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기치를 힘차게 휘날리며 우리 당의 믿음직한 돌격부대, 전투부대로 그 이름 조국청사에 자랑스럽게 수놓아올수 있었던것이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긍지높은 자기의 이름을 더욱 빛내이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과 인민사랑의 뜻에 떠받들려 시대의 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선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 민들레학습장공장, 청년운동사적관…

이 모든것은 위대한 당의 품에서 위훈의 창조자로 자라난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을 굳게 믿으시고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조선청년, 그 빛나는 이름을 더욱 긍지높이 떨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속도전청년돌격대가 세운 빛나는 로력적위훈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속도전청년돌격대를 강력한 건설력량으로 꾸리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도 거듭 취해주시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온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와 더불어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는 핵심부대로 자기의 전투적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조국번영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전 광 남

‖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언해설 ‖

《청년들이 기세높이 나아가면 강산이 들끓고 온 나라에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명언에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주인공들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인 우리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하여 강성할 래일이 앞당겨지게 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청년들을 중시하는 혁명은 언제나 생기와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된다.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진 영웅전의 갈피들에는 당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하며 산으로, 바다로, 개발지로 달려나간 천리마시대의 청년들, 준엄한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에서 불굴의 기상을 높이 떨친 선군시대 청년들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깃들어있다. 세상에는 우리 나라 청년들처럼 당과 인민의 아낌없는 사랑과 믿음속에 나라와 민족의 양양한 앞날을 열어나가는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 천군만마와도 같은 강위력한 청년대군은 없다.

우리 청년들은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척후대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척후대의 기본사명은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돌진력, 질풍같은 속도로 대오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는데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더운 피 펄펄 끓는 수백만 젊은이들의 무한대한 정신력, 담대한 배짱과 강용한 기상을 믿고 세계를 압도할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고있으며 당중앙이 작전하는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총진군대오의 척후대, 이것은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며 입격에 산도 허물고 강줄기도 막는 드세찬 공격정신의 체현자들인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시대의 값높은 칭호이다. 청년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마다에 쪼아박고 대고조격전의 앞장에서 혁명의 북소리를 쾅쾅 울리며 련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아갈 때 우리 조국땅우에는 승리의 기상, 비약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게 된다.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의 심장에서 분출되는 애국의 웨침이 총진군대오의 전렬에서 높이 울려퍼지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청춘의 열정과 기백으로 끊임없는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해나가는 총진군대오의 기수, 선구자들이다.

청춘시절은 아름다운것을 지향하는 다정다감한 시절이며 창성한 지식욕과 탐구심이 북받쳐오르고 새로운것을 탐구하고 창조하는 열정적인 시절이다. 마치 파면 팔수록 더 세차게 솟구치는 샘물과도 같이 날마다 힘과 열정이 솟아나는 시기가 청춘시절이라고 할수 있다. 청년이라는 이름은 기적의 대명사이다.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끊임없이 비약하는 위대한 우리 조국, 백두산대국은 젊은 힘이 용솟음치는 자기의 장한 아들딸들을 부르고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투쟁에 용약 떨쳐나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도처에 일떠세우며 인생에 한번밖에 없는 귀중한 청춘시절을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여나가고있다. 하나를 연구해도 세계를 놀래우는 희천단의것을 내놓고 한가지 일을 해도 하늘을 나는 초음속비행기의 속도로 해제끼려는 우리 청년들의 웅대한 포부와 진취성은 조국번영의 씨앗들을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는 활력소로 되고있다.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모든 청년들은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백두의 칼바람에 불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는 백두청춘들의 영웅적기상을 높이 떨쳐야 할것이다.

김 성 룡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성천강구역당위원회 사업에서

청년강국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당조직들이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청년사업을 당사업의 한부분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있는 성천강구역당위원회사업을 통해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사업을 당사업 못지 않게 중시하고 청년동맹조직들을 적극 내세워주며 동맹조직이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힘껏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구역당위원회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우선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킨것이다.

여러해전까지만 하여도 구역당일군들의 머리속에는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주관부서일군들만이 해야 할 일로 여기는 관점이 뿌리깊이 남아있었다.

이 문제해결을 구역의 청년사업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선차적인 고리로 본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정무처회의에서 청년동맹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정무처성원들에게 청년사업개선을 위한 분공을 준 다음 엄격히 총화하는 제도를 세웠다.

구역당책임일군부터가 실천적모범을 보였다. 그는 구역청년동맹위원회청사를 도적인 본보기단위로 꾸림에 대한 구역당위원회결정집행을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앞세웠다. 이러한 모범은 구역당일군들의 청년사업에 대한 관점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봄 구역당위원회는 구역안의 모든 단위 청년학교 꾸린 정형을 특화활영하여 당 및 행정일군들의 모임때에 보여주었다. 청년학교를 잘 꾸린 단위 당조직들은 평가를 받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단위 당조직들은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 이 일을 계기로 구역안의 모든 당조직과 당일군들속에서 청년사업을 당사업의 한부분으로 여기고 깊은 관심을 돌리는 기풍이 더욱 높이 발휘되게 되였다.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청년동맹조직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당적지도를 강화한것이다.

우선 청년동맹조직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사업방향을 정확히 그어주고 밀어주었다. 특히 5대교양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도록 하였다.

여러해전부터 구역청년동맹위원회는 고급중학교졸업반 학생들로 수유나무림사업소에서 3일간의 나무심기를 조직하는것을 년례화하였다.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된 학생들이 제손으로 고향산발에 나무를 심으면서 조국애를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실천과 결부된 이러한 교양사업이 유당한 실효를 거두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그이께서는 주체80(1991)년 4월, 완공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나오시여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과 함께 나무도 심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불멸의 화폭도 남겨주시였다.

구역당위원회는 해마다 진행되는 구역안의 고급중학교졸업반 학생들의 합창공연, 국방체육경기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제기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주었다.

또한 청년들에게 뜨거운 일감들을 맡기고 그 수행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청년강국의 명장들로 억세게 키워나갔다.

중요한 공사의 야간지원돌격대활동과정을 통하여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전위투사들로 키워나갔다.

구역당위원회는 온정공원과 성천공원, 금사공원건설때에도 청년동맹이 중요한 몫을 맡아해제끼도록 함으로써 동맹조직의 자립성, 창발성을 높여주고 청년들을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온 도가 자랑하는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의 성장에도 구역당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잘못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새 출발하려는 청년들로 10년전 차광수청년돌격대를 조직한 구역당책임일군들은 돌격대에 어렵고 힘든 일감들을 맡겨주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었다. 아빠트건설로 첫걸음을 뗀 돌격대원들은 어려 구간의 도로포장공사, 백운산종합식료공장개건공사, 흥남가스화대상공사, 함흥물놀이장과 과학자살림집건설 등 중요대상공사들에 참가하는 과정에 사상의 강자, 기적의 창조자들로 성장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청년들의 생활을 협력의 정으로 돌봐주는 사업에도 많은 품을 들였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직후였다.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줄 솜조끼와 솜옷은 풀론이고 색안경과 비옷의 형태까지 보아주면서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마련하도록 한 구역당책임일군은 가정에서 성의껏 준비한 후방물자까지 화물자동차에 듬뿍 싣고 청년동맹일군들과 함께 백두전구로 향하였다. 현지에 도착하여 돌격대원들을 일일이 만나 고무해준 그는 집적정하는 돌격대원들의 속마음까지 헤아려보고 돌아오는 즉시 당일군들로 돌격대원들의 가정방문을 조직하였다. 자신이 직접 물자들을 준비해가지고 한 돌격대지휘관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들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해주면서 가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친부모의 심정으로 풀어주었다.

자기 집의 텔레비죤이며 록음기도 아낌없이 보내주었는가 하면 색다른 물고기나 과일이 생겨도 청년들을 먼저 생각하고 고추가루, 맛내기같은 조미료걱정까지 해주는 당책임일군들을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이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렇듯 구역당위원회가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수록 청년동맹조직들의 전투력은 백배해졌고 온 구역에 청년중시의 기풍, 청년사랑의 열풍이 더욱 뜨겁게 차넘치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 향 란

청춘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개성시 동창리당위원회에서

개성시 동창리당위원회에서는 청년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이 농사일에서 청춘의 열정과 슬기를 남김없이 발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월사업계획에 청년동맹조직과의 사업내용을 정상적으로 반영하고 모든 당세포들이 청년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해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당세포들에서는 작업반청년동맹조직들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청년학교를 잘 꾸려주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청년동맹초급단체들에서는 청년학교를 잘 운영하여 청년동맹원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맡은 농사일에서 청춘의 열정과 지혜를 적극 발휘해나가게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감이 제기되면 청년들에게 대담하게 맡겨주어 그들이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도록 하고있다. 리청년동맹조직에서는 청년돌격대활동으로 양어장바닥흙과기를 3일동안에 진행하여 수천의 질좋은 흙을 논밭에 실어낼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농장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힘든 일감들을 청년들이 도맡아 해제끼면서 농사일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도록 하고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농장에서는 벼랭상모판씨뿌리기와 모내기, 김매기와 콤바인기를 비롯한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농사일들이 시기를 놓침이 없이 질적으로 결속되고있다.

지금 리안의 어느 작업반, 어느 전투현장에 가보아도 청년들이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며 뜻깊은 올해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모습을 볼수 있다.

이것은 리당위원회가 청년들과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청년동맹사업을 잘 이끌어주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라고 말할수 있다.

로농통신원 남 래 식

사회주의건설장에 더 많은 철강재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앞장섰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위대한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길에서 타오르는 불길, 꺼질줄 모르는 해불이 되리.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부강조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조선청년의 본때를 단단히 보여주자

당의 믿음이면 우리는 지구를 든다

백두산영웅청년려단 지휘관, 돌격대원들

백두의 전구에서 우리의 영웅들이 왔다.

위훈으로 빛나는 혼장, 메달들을 가슴마다에 번쩍이며 발걸음도 씩씩하게 영광의 대회장으로 달려온 백두청춘들의 모습은 얼마나 미덥고 자랑스러운것인가.

주체혁명의 시원이 얼린 백두대지에 백두산영웅청년1호, 2호발전소를 청춘대기념비로 보란듯이 일떠세운데 이어 3호발전소를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여 청년강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오늘의 만리마시대를 상징하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창조한 그들에게 온 나라 인민은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띠밤드는 억센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여야 합니다.》

우리 잠시 백두대지에 새겨온 청춘들의 위훈의 자욱을 더듬어보자.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은 기존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어려운 전투였다.

하지만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신념의 강자, 창조의 거인들로 자라난 청년돌격대원들은 산악같이 일떠섰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자기들을 백두산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간직되여있었다.

당중앙은 영웅청년들을 굳게 믿는다고, 련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갈 마음의 신념에를 더 바싹 조이고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올해 청년절까지 끝내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은 청년대군을 새 기적창조에로 부른 전투적기치였다. 공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몸소 세워주시고 돌격대원들의 겨울나이준비도 친히 헤아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은 청년건설자들의 용솟음치는 힘과 열정을 최대로 분출시켰다.

청년들을 믿고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돌격대원들은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에 총궐기하였다. 언제가베수로, 조압수조, 취수구콩크리트타입, 물길굴피복공사장들에 전개된 련대, 대대들이 불꽃튀는 전투로 결사관철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한 즉시 3호발전소를 영광의 5월에 드리는 로력적선물로 마련한 맹세를 다짐하고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강설이 들이닥친 북부고산지대 겨울철의 기상기후조건, 불리한 수송조건 등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열혈청년들은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키운 청년돌격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갔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영웅이 되자!》,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심로따라 폭풍쳐 내달리자!》, 《원수님 믿음이면 우리는 지구도 든다!》라는 격동적인 글발들이 청년전위들의 심장속에서 승리의 표대, 위훈의 기치로 힘차게 나붓기였다. 사정없이 몰아치는 강풍과 쏟아져내리는 폭설, 살을 에이는 혹한속에서도 《가리라 백두산으로》, 《라오르라 우등불아》를 비롯한 혁명적인 노래로 기세를 올리고 기계수단마저 얼어붙으면 괭괭마대와 장석질통을 지고 달리며 《결사관철》의 구호를 웨치는 청춘들의 힘찬 발구름소리가 백두의 산발들에 메아리쳐갔다.

청년돌격대원들은 당이 바란다면 가능성을 타산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비상한 사상적각오를 안고 언제속벽, 조압수조, 발전기실 등 콩크리트타입장들에 보온덮개들을 지어놓고 타입전투를 본격적으로 들이대여 겨울철에는 수력발전소건설을 할수 없다던 기존공법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었다. 그들은 박달나무도 얼어터질 강추위속에서도 흔석을 불에 달구고 물을 끓여 혼합물을 이기면서 콩크리트속벽타입을 빠른 속도로 내밀었다.

백두전역에서 청입식으로 벌어진 정치사상사업은 청년돌격정신을 최대로 폭발시켰다.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여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일대 사상전의 불바람속에서 백두청춘들은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과 자력자강의 창조기풍을 뼈속깊이 새긴 신념과 의지의 강자, 창조의 능수들로 더욱 억세게 자라났다.

앞선 단위를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 위한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속에 전투기록장들에는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시간과 분이 다르게 최상의 성과, 최고의 위훈들이 새겨졌다. 함경남도련대의 돌격대원들은 1호발전소언제건설때 휘틀해체시간을 16시간으로부터 8시간으로 단축하였다면 3호발전소언제건설때에는 4시간으로 줄이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평안북도련대의 돌격대원들이 물길굴건설에서 놀라운 위훈을 떨칠 때 함경북도련대의 돌격대원들은 부족되는 휘틀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면서 발전기실건설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황해남도련대의 돌격대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기관차, 화차들을 수리하여 많은 연유와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수천㎥의 장석을 운반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수송전사들도 전선에 총포탄을 나르는 심정으로 수송전투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워 백두청춘들의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혼합기를 전혀 쓸수 없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청년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이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배짱을 지니고 질풍같이 내달려 높이 세운 전투계획을 2배, 3배로 넘쳐 수행하여 콩크리트속벽타입을 3월 24일에 완전 결속하였으며 3월 31일 언제정점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렸다.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련전련승의 포성을 힘차게 울려온 백두청춘들의 전인불발의 투쟁은 석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수력발전소언제를 일떠세우는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낳았다.

지난 4월 완공된 3호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이 창조되였다면 오늘의 어려운 시기에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되였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에게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그 믿음을 안고 총정의 200일전투에서도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우리 당이 정해준 백승의 심로따라 폭풍쳐 나아가는 길에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창조자의 영예를 더욱 높이 떨쳐가려는 백두청춘들의 신념과 의지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와 더불어 만방에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농장벌에서도, 날바다에서도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안악군 대추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의 기세가 대단하다. 지난해에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수십t의 애국미를 헌납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그들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그들이 내세운 목표는 논벼 정당 10t이다.

조건이 어려웠지만 모내기를 철전 앞당겨 끝내였으며 그 기세로 김매기전투에서도 련일 혁신을 일으키였다.

그들에게 얼마전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분조장 김영광동무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대표로 선출되였던것이다.

청년분조원들모두가 자기의 일처럼 기뻐하였다. 그리고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하자고 더욱 분발해나섰다.

청년분조원들은 풀베기전투목표를 더 높이 세웠다.

두배로 높아진 풀베기전투목표. 이것을 다른 전투과제를 수행하면서 열흘이나 앞당겨 끝낸다는것은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허나 어머니당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안고 영광의 대회를 맞이하려는 청년분조원들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이른아침부터 날이 어두울 때까지 풀베기전투를 벌리고 밤에는 밤대로 풀단운반전투를 벌리였다. 이런 긴장한 전투를 벌리는 속에서 조철웅, 김금석동무를 비롯한 청년분조원들은 양수기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놓고 논물관리를 해가며 포전에서 새날을 맞군 하였다. 돌쥐잡이보습도 만들고 밀폐식탈곡기를 개조하여 그 능력을 2.5배로 늘이였다.

말그대로 하루가 열흘, 백날맞잡이였다.

이런 불같은 열정에 의하여 마침내 지난 8월 20일 저녁 110%라는 높은 풀베기실적과 함께 계획하였던 다른 전투목표들의 수행정형을 총정의 200일전투기록장에 자랑스럽게 기록하였다.

우리는 바다의 정복자

물에서 멀리 떨어진 통해어장에는 지금 단천수산사업소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도 있다. 선장 심은희동무를 비롯한 선원들모두가 꽃나이처녀들이다.

남자들도 아닌 처녀의 몸으로 하루이틀도 아니고 오랜 기간 먼바다에서 어로전투를 벌리는 그들의 가슴속에는 과연 무엇이 간직되여있는것인가.

언제인가 물고기떼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접하였을 때였다. 처녀어로공들은 지체없이 먼바다로 나갔다.

만선기를 몇번이나 올렸지만 그들의 일욕심에는 끝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만선기를 올렸지만 황철순, 지봉향동무를 비롯한 처녀어로공들은 또다시 그물을 놓이였다. 그런데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 갑자기 사나운 태풍이 일기 시작하였다.

4t이나 되는 물고기를 싣는다면 배가 위험하였다. 그순간 처녀어로공들의 가슴마다에서는 하나와 같이 맥동치는것이 있었다.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한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더 많은 물고기잡이실적으로 보답하자고 결의해나선 우리들이 아닌가. 기어이 이 물고기를 뭍으로 끌고가자.

처녀어로공들은 힘겨운 전투를 벌렸다. 세찬 파도에 밀려 암초에 부딪칠번 한 위험한 순간이 몇번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용감한 처녀어로공들은 끝끝내 물고기를 잡은 그물을 끌고 뭍으로 돌아왔다.

처녀어로공들은 또다시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다. 물고기잡이계획을 122%로 넘쳐 수행한 성과와 함께 사나운 태풍속에서 진행한 그들의 전투소식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분에 넘치는 높은 평가를 주신것이다.

날로 커만 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은 그들의 열의를 백배로 해주었다.

처녀어로공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배를 만능선으로 개조하고 건착작업도 대담하게 해나가며 매달 물고기잡이계획을 철전 넘쳐 수행하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바다의 정복자들로 용맹떨치고있는 단천수산사업소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 처녀어로공들의 모습은 얼마나 자랑스러운것인가.

본사기자 장철범

지하막장에 새겨가는 청춘의 위훈

평안남도의 탄광청년돌격대들의 투쟁을 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구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조국을 빛내이고 시대를 떨치는 청년영웅이 되여야 합니다.》

평안남도의 탄광들에는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를 바친 영웅의 이름과 함께 불리우는 50여개의 청년돌격대가 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맞으며 14개의 청년돌격대가 200일전투목표를, 30여개의 청년돌격대가 8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수천척지하막장에서 피와 땀으로 청춘의 자서전을 새겨가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위훈의 자욱자욱을 더듬어보자.

우리 원수님의 혁명시간에 살자

도안의 청년돌격대원들의 위훈에 대해 말할 때 먼저 천성-성산천자연호름식배수갱공사에 동원된 김영조청년돌격대를 꼽아야 할것이다.

그들의 투쟁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지난해 2월 어느날 새벽 3시도 지난 때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몇몇치 못한 경력을 가진 청년들이 돌격대를 뭇고 보람의 첫걸음을 떼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은 얼마나 세차게 고동쳤던가.

그때부터 그 크나큰 사랑의 시간을 기준으로 돌격대의 일과표를 정한 그들이였다.

바로 충정의 그 마음으로 돌격대원들모두가 지하막장에서 결사전을 벌려 수천m의 물길굴을 홍관통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공사를 앞당겨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제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성-성산천자연호름식배수갱공사에 동원된 청년돌격대원들과 지원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200일전투에 들어와서도 이곳 돌격대원들은 우리 원수님의 혁명시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확장공사에서 날마다 계획을 200%이상 초과수행해나가고있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 가면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이 자랑하는 7개의 청년돌격대에 대한 말을 들을수 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자기앞에 맡겨진 굴진계획을 수행하면서 련합기업소적으로 가장 어려운 굴진대상들을 도맡아 해제끼고있다.

련합기업소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인포탄광 1갱구역에 새개의 청년돌격대가 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맞으며 14개의 청년돌격대가 200일전투목표를, 30여개의 청년돌격대가 8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수천척지하막장에서 피와 땀으로 청춘의 자서전을 새겨가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위훈의 자욱자욱을 더듬어보자.

그보다 이들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울려준것은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들고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고상한 미풍이였다.

지난 7월에도 이들은 다음교대를 위하여 배수로정리와 막장정리를 끝내고 공기호스와 압축기 1대, 물통을 남먹탄광 김혁청년돌격대에 넘겨주어 돌격대가 열흘동안에 46m의 굴진을 내미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게 했다. 이것이 불씨가 되여 련합기업소안의 청년돌격대들속에서는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실천의 구호로 되게 되였다. 이것은 그대로 200일전투성과로 이어지게 했다.

고향집어머니의 따뜻한 정

얼마전 우리가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안의 청년돌격대원들의 형실을 돌아보고 강하게 느낀것은 돌격대에 차넘치는 따뜻한 공기였다.

련합기업소 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을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 그들이 돌격대를 정든 고향집으로 여기게 하고있다.

어느날 저녁 련합기업소안의 10개의 청년돌격대 대장들은 《폭풍!》하는 구령소리를 듣고 한말음에 집결장소로 달려갔다.

(어떤 긴급명령이 떨어졌을가.)

제나름의 생각을 앞세우던 그들은 놀랐다. 이미 시작한 돌격대병실건설을 하루빨리 결속하고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는 협의회였기때문이였다.

그날 련합기업소 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라형일동무의 절절한 목소리는 참가자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집을 떠나 생활하고있는 돌격대원들이 고향집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그리워함에과 훌륭한 보금자리도 마련해주고 친형, 친오빠가 되여 돌격대원들에게 생일상도 차려주며 생활을 카근히 돌봐주는 지휘관들의 진정은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앞두고 련합기업소안의 6개의 청년돌격대가 200일전투목표를 수행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일전투의 선구자라는 자각을 안고 지하막장에서 돌격대기발을 휘날리며 피와 땀으로 청춘의 자서전에 위훈을 새겨가고있는 이런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내 조국의 자랑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대고조진군의 기관차로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의 청년전위들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청년돌격대운동이 힘있게 전개되여 기업소의 전투현장들이 청년들의 활무대로 들끓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혁명투쟁의 전구들마다에서 청년돌격대, 청년근위대,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여 그 어디나 청년판으로 흥성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의 김혁청년돌격대가 첫걸음을 내짚은것은 지난 3월 17일이였다.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와 슬기를 남김없이 떨칠 불같은 결의를 다지며 청년돌격대원들은 목표를 대담하게 세우고 전투 첫날부터 힘찬 돌격전을 벌리였다.

화차생산에 필요한 파고철수집과 심여km에 달하는 구내철길 표준화공사, 종업원들의 땔감문제해결을 위한 석탄운반전투…

30명의 돌격대원들로 남은 전투기간에 하기에는 그야말로 아름찬 과제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직접 현장을 밟아보면서 실태를 료해한데 기초하여 일별로 작업과제를 빈틈없이 세우는것과 함께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었다.

전투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청년동맹일군들의 선구자적모범은 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위훈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였다.

이러한 열기속에 김혁청년돌격대원들은 수십t의 파고철을 수집하고 한달동안에 구내철길표준화공사를 끝낸것을 비롯하여 돌격대앞에 맡겨진 과제를 앞당겨 해제낌으로써 련합기업소의 전투목표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청년돌격대원들은 총정의 200일전투장에서도 기적창조, 위훈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과학기술보급실이 훌륭히 꾸려졌으며 수십t의 파고철이 수집되여 화차생산실적이 높아지고 종업원들을 위한 정양소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의 이러한 투쟁기풍은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청년동맹원들의 가슴가슴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이들의 청년돌격대운동에서 특징적인것은 돌격대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생산돌격전과 동시에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청년돌격대원들을 정신육체적으로뿐아니라 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억센 기둥감들로 키울 결심을 안고 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돌격대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단위의 특성에 맞게 참신하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지금 이곳 련합기업소에서는 대학, 기능공학교 교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작업의 여가시간을 리용하여 청년돌격대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학습전투도 맹렬히 벌어지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하며 총정의 자욱을 새기여가는 이곳 청년돌격대원들과 청년동맹원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하여 련합기업소안의 생산현장들과 건설장들은 물론 학습전투가 벌어지는 대학과 기능공학교, 그 어디를 가보아도 청년판으로 흥성이고있다.

본사기자 한영철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쳐가도록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인민소비품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평양양말공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

기록영화 《청년강국의 빛나는 력사》 관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이 26일 4.25문화회관에서 기록영화 《청년강국의 빛나는 력사》를 관람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다.

영화는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시고 청년문제해결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시여 우리 나라를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청년운동령도사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청년문제를 혁명의 성패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항일의 불길속에서 몸소 키우신 혁명의 첫세대 청년전위들을 핵심으로 하는 혁명직무장대오를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화폭들은 관람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관람자들은 영화를 보면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청년들을 시대의 앞장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는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아래 청년강국건설의 빛나는 전통과 만년기틀이 마련되였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 년대와 년대들에 수백만 청년들을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에 무한히 충실한 당의 청년전위들로 키우시였으며 주체의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키신 불멸의 혁명실록을 영화는 가슴뜨겁게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우리 청년들을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 체현자들로, 선군혁명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관람자들은 절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영화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숭고한 뜻을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혁명의 전위투사들로 키우시여 청년강국건설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자료들도 편집되여있다.

영화에 수록된 잊을수 없는 력사적화폭들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불패의 청년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생애를 돌이켜보았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주체의 청년운동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으로 승승장구할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의 영예를 떨쳐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위훈의 기발은 오늘도 펄럭인다

‖ 숙천군 열두삼천농장 청년작업반들에서 ‖

마침전 이른아침이였다.

숙천군 열두삼천농장 청년제3작업반쪽으로 걸음을 재촉하던 리당위원장 양광수동무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청년작업반원들이 그때 벌써 많은 줄줄을 퇴적장으로 날라들이는 모습이 언뜻 눈에 띄였던것이다.

첫새벽부터 풀베기전투를 한바탕 벌렸을 청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미 자기들앞에 맡겨진 풀베기과제를 다 수행한 그들이였다. 하지만 자기들의 작업반장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떠나간 그날부터 스스로 풀거름생산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매일 종전의 1.5배가 넘는 풀거름을 생산해내고있는 청년작업반원들이 더없이 자랑스러웠다.

어찌 그들뿐인가. 낮에는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창조하고 밤이면 청년작업반건물 개건보수전투장에서 청춘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미더운 청년제1, 2작업반원들.

그들의 열정넘친 모습을 바라보는 리당위원장의 가슴속에 추억의 파도가 세차게 밀려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당과 혁명의 요구,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여온것처럼 오늘의 력사적진군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 열정을 다 바쳐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1970년대말 온 나라 농촌들에 세차게 타번진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농장에도 3개의 청년분조가 태여났다.

첫해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간석지논에서 정보당 9.5t의 알곡을 생산한 기적과 자랑을 담은 농장 청년분조원들의 편지를 보아주시고 몸소 회답편지까지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

영광의 그날 꿈같은 행복에 울고웃으며 청년분조원들은 맹세했다.

어버이수령님 아시는 청년분조의 영예를 높이 떨치자.

그때로부터 30여년, 얼마나 많은 청년분조원들이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로, 조선로동당원으로 자라나고 작업반장, 관리위원장,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을 비롯한 농촌핵심골간으로 성장했던가.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였어도 위훈의 기발을 변함없이 펄럭이며 오늘도 더 높이 올려가는 청년작업반원들의 심장의 웨침은 과연 무엇이던가.

전세대들처럼 우리 원수님께서 아시는 청년작업반이 되자.

그 맹세, 그 열정과 더불어 총정의 200일전투기록장이 두터워지고 열두삼천리벌이 더더욱 풍요해지고있으니 어찌 청년들이 자랑스럽지 않으랴.

우리 당이 키워준 훌륭한 청년들,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한모습으로 사회주의전야를 지키고 가꿔가는 열두삼천리벌의 청춘들을 안아주고싶었다. 하늘높이 떠받들어주고싶었다.

리당위원장은 말없이 청년작업반원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나서 그들과 함께 일손을 잡았다.

눈부신 아침해살이 그들의 머리우로 쏟아져내렸다.

본사기자 장은영

절대불변의 진리, 혁명만이 살길이다

혁명연극 《피바다》의 첫 공연이 진행된 때로부터 80년력사를 더듬으며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만강에서 혁명연극 《피바다》의 초연무대가 펼쳐진 때로부터 80년세월이 흘렀다.

오직 혁명만이 살길이며 총대로만 수난의 피바다를 투쟁의 피바다로 만들수 있다는 력사의 진리, 혁명투쟁의 합법칙성을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준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뜻깊은 선군절과 더불어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투쟁의 진리를 력사에 뚜렷이 새겨준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창작경위를 다시금 돌이켜보는것으로 하여 그 의미는 더욱 깊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어도 고귀한 사상정신적, 문학예술적재보로 끝없이 빛을 뿌리고있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와 함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총대는 혁명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철리를 더욱 심장깊이 새겨안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는 그 사상적내용의 철학성과 심오성에 있어서나 생활반영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 주체적문예사상이 제기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의 근본요구를 완벽하게 구현하고있습니다.》

선군의 총대와 함께 혁명적문학예술을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틀어쥐고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언제나 천만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시대를 선도해온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빛을 뿌리고있다. 그중에서도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는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연극 《피바다》를 구상하시고 그 대본작업에 착수하신것은 동강회의직후였다.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이며 강유력한 지하혁명조직인 조국광복회의 창립이 선포된 동강회의, 그것이 가지는 력사적의의는 매우 컸다.

온 민족이 총동원하여 나라의 해방을 이룩할것을 호소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은 사실상 전민항쟁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동강의 밀림에서 타오른 전민항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데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의식화하는 사업은 더없이 중요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처에서 연예공연무대를 펼쳐놓도록 하시고 그것이 발휘하는 비상한 감화력을 직접 목격하시면서 연극과 같은 본격적인 무대형상으로 사람들을 직극적으로 제몽시키고싶은 충동을 느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연극 《피바다》를 창작하시게 된 기본연원은 어린시절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배우신 《간도토벌가》에 있었다.

일제 《토벌대》의 군도와 총창끝에서 하루에도 수십명 지어는 수백명씩 무리죽음을 당하는 대살륙의 참사가 끊임없이 빚어지는 간도땅은 문자그대로 피바다였다.

그런 참혹한 운명앞에서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총대와 곤봉을 틀어잡고 분연히 일어나 항쟁을 계속하고있는 인민의 모습, 삼강오륜과 삼종지도에 구속당하던 녀인들과 어머니들의 치마폭에 싸여 밤무정질을 하던 아이들까지도 일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거족적인 항쟁에 참가하고있는 현실을 목격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감동은 참으로 크시였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번화운동에 뛰어든 녀성들, 이 혁명의 주인공들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사랑을 느끼시는 그이의 사색속에서는 희생된 남편의 뒤를 이어 혁명의 길에 나선 한 녀인과 그의 자식들의 형상이 무르익어갔다.

마침내 주체25(1936)년 8월 하순 백두산아래의 첫 동네인 만강의 화전민촌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초연무대가 펼쳐졌다.

만강사람들은 무대우에 자기들이 겪어온 생활과 똑같은 생활이 펼쳐지자 가슴을 움켜쥐고 연극의 세계에 끌려들어갔고 나중에는 갑순이와 함께 울고 어머니와 함께 부르짖었다. 한 로인은 연극을 본다는것도 잊고 무대에 뛰어올라가 을남이를 쏘아죽인 일본군 토벌대장놈의 역을 맡은 유격대지휘관의 이마를 장죽으로 후려치기까지 하였다.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며 무장에는 무장으로 맞서야 한다는 진리는 단 한편의 혁명연극을 통하여 사람들의 뇌리와 폐부에 그대로 흘러들어갔다. 수많은 청년들이 무대에 뛰여올라와 유격대입대를 열렬히 청원하였다.

그날 만강마을에서는 밤새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초저녁부터 북을 끄고 잠을 청했을 순박한 산골사람들이 그날밤만은 지정이 철철 넘날 때까지 등잔불밑에서 연극을 본 소감을 나누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초연무대가 만강마을에 혁명의 씨앗, 투쟁의 씨앗을 뿌린셈이였다.

만강에서의 연극공연은 두메산골 까막눈이던 젊은이들, 늙은이들을 혁명적으로 계몽하고 교양하여 항일혁명투쟁의 적극적인 참가자로, 후원투사로 개변시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한마디로 말하여 항일혁명시기의 예술은 암흑을 불사르는 등불이라고도 할수 있었으며 사람들을 투쟁의 길로 부르는 북소리라고도 할수 있다, 우리가 예술활동을 가리켜 《북대포》라는 말로 표현한것은 어느모로 보나 정당한것이였다고 하시면서 그때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하나의 불씨가 료원의 불길로 타오른다는 말이 있듯이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는 이렇듯 전체 조선인민을 반일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의 불씨로 되여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투쟁의 불길을 활활 지펴주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많은것이 력사의 이끼속에 묻혀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수십년전 만강을 뒤흔든 《피바다》의 메아리,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력사의 진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주체49(1960)년 8월 2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새기신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 진정 그것은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총대로 항일대전의 승리를 안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 선군혁명위업을 드팀없이 계승해갈 위대한 백두령장의 신념의 선언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문학예술부문사업을 지도하시면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영화와 가극, 소설로 옮기는 사업을 통하여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인류가극사상 있어보지 못한 《피바다》식혁명가극을 창조하시여 그것이 천만군민의 투쟁의 길동무가 되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종자는 수난의 피바다를 투쟁의 피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원작에 충실하려면 작품의 종자를 옳게 인식하고 원작그대로 재현하는것이 중요하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의 종자는 피바다, 불바다속에서 수난과 우여곡절의 길을 걸어온 주인공이 생활체험을 통하여 심장으로 체득한 생활과 투쟁의 진리이기에 오늘도 사람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그들을 참된 삶과 투쟁의 길로 힘차게 고무하고있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여러 형태의 문학예술작품으로 옮기는데서 우리 장군님께서 일관하게 내세우신 창조원칙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가극 《피바다》의 창조를 지도하시던 나날에 있었던 하나의 사실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새로운 혁명가극을 창조하던 이 시기 창작가들은 너무도 오랜 기간 낡은 고전가극의 틀에 매여있었기때문에 당의 의도에 맞는 짙가화된 노래를 제대로 창작해내지 못했다. 혁명가극의 제7장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연설 노래창작과정 역시 그러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작가들이 지은 노래를 여러번 거듭 들어주시다가 어머니가 자기의 간고한 생활체험을 총화짓는 자리에서 《참혹한 피바다에 남편을 잃고》라고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바로 어머니의 내면세계를 노래의 선률에 담아야 한다, 지금처럼 음을 순차적으로 배렬하는 식으로 하여서는 어머니의 연설장면을 살릴수 없다, 선률을 내려오다가 다시한번 아래로 떨구었다가 우로 올라가게 하는 식으로 고치는것이 좋겠다는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짙가가 가지고있는 풍부한 표현력으로 주인공의 깊은 내면세계,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부각시켜준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가》도 우리 장군님의 이처럼 세심한 지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가극에서 나오는 수십편의 노래를 위해 무려 수천편의 노래들을 입입이 들어주시고 독창과 방창을 결합시킴으로써 명곡의 사상감정을 고조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는 정녕 혁명가극의 모든 세부를 통해 우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의 영원한 진리, 투쟁의 진리를 더 깊이 새겨주시려는 백두의 선군령장의 빛나는 예지의 빛발이였다.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이 선군으로 시작하고 선군으로 세계를 놀래우는 승리의 한길만을 줄기차게 걸어온 조선혁명의 영원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쳐오신 심혈과 로고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제목을 가극단의 이름으로 그대로 달아주신 사실이며 혁명가극 《피바다》의 창조이후에 태어난 여러 혁명가극들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혁명의 불, 투쟁의 불을 달아준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한 지위단원의 운명》에 맥박치는 하나의 사상도 혁명만이 살길이며 제국주의자들과는 정면으로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철의 진리이다. 이 땅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아야만이 자기를 지킬수 있고 번영할 미래도 담보할수 있다는 영원한 투쟁의 진리를 밝혀준것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지도하여주신 혁명가극들은 오늘도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한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투쟁의 진리가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고 총대가 강해야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강국을 건설할수 있다는 선군혁명사상으로 대를 이어 계승발전되였기에 오늘은 우리 나라가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 세계를 굽어보는것 아니겠는가.

우리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위대한 그 전통을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더욱 뜻뜻이 이어지고있다.

1600여회를 기록하며 세 세기에도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혁명가극 《피바다》공연, 진정 이것은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완벽하게 구현한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창작하시고 세상에 다시 없을 《피바다》식혁명가극을 창조하시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상전의 나팔소리가 더욱 힘있게 울려퍼지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특출한 업적을 대를 이어 전결히 옹호고수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위대한 그 전통을 꿋꿋이 이어가려는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피바다》식혁명가극의 독창성과 영원한 생명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세 세기의 첫 혁명가극으로 창조된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사상적내용의 심오성에 있어서나 예술형상의 풍부성에 있어서 만사람의 절찬을 받고있는 혁명가극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생명처럼 간직하고 위대한 백두령장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혁명의 불길, 투쟁의 불길, 신념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고있다.

혁명의 길은 의연히 간고하고 투쟁은 계속된다.

80년전의 《피바다》는 오늘도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주제의 진리, 투쟁의 진리로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지구가 깨여진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혁명을 해야 하며 백두에서 추켜든 혁명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가고가야 한다는 력사의 철리가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의 거대한 메아리로 울려퍼지고있다.

수난과 원한의 피바다우에서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피바다》의 어머니가 높이 부르는 노래 《혁명만이 살길이다》가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의 절사전에로 부르고있다.

피바다우에서 찾은 이 불변의 진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세월의 끝까지 가고갈 천만대오의 앞길에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주는 영원한 고무적기치로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조 향 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6일 허철, 강진영 부학부장들과 리용훈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락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주체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가 나미비아공화국 초대대통령을 만났다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으로 나미비아공화국을 방문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는 23일 삼 누죠마 나미비아공화국 초대대통령을 만났다.

석상에서 삼 누죠마 초대대통령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리수용동지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나미비아의 독립투쟁을 진심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고있으며 고맙게 생각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조선을 비롯한 친선적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 나미비아인민은 급함없이 싸워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는 독립후에도 나미비아에 사심없는 지지와 원조를 보내준 조선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최근 미국이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를 갈라놓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지만 나미비아는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조선로동당과 정부와의 친선협조관계를 변함없이 이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평화와 안정은 오직 자기를 지킬수 있는 군사력에 의해서만 담보될수 있다고 하면서 세계 모든 진보적나라들은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력사적인 친선의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조선로동당대표단 성원들과 나미비아의 관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와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 총비서사이의 회담 진행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으로 나미비아공화국을 방문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와 낭골로 음붐바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 총비서사이의 회담이 22일에 진행되였다.

리수용동지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진행정형에 대하여 통보하였으며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당의 인민중시,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서와 두 당사이의 친선관계를 변함없이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낭골로 음붐바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대표단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그이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그대로이신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독특한 정치와 령도방식의 결실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앞으로도 언제나 승리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당과 인민이 지난 시기 나미비아인민의 투쟁에 사심없는 지지성원을 보내준데 대하여 자기들은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앞으로도 조선과의 쌍무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이 사상사업과 청년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는 자기 당에 있어서 귀중한 경험으로 된다고 하면서 당건설과 사상사업, 청년교양사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조선과의 협조와 교류를 적극 실현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회담에는 조선로동당대표단 성원들과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 주요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이날 조선로동당대표단은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학교와 나미비아영웅릉, 독립박물관을 참관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 요한네스부르그 도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24일 요한네스부르그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리본 모슬리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국제부 부부장과 김창렴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한편 이날 조선로동당대표단은 나미비아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비행기로 수도 윈드후크를 출발하였다.

체류기간 대표단은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학교와 나미비아영웅릉, 독립박물관을 참관하였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28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배구경기관에서는 기관차체육단과 평양체육단사이의 남자배구 1급경기가 진행된다.

쇠물집 남자 1급 축구결승경기는 이날 서산축구경기장에서 벌어진다.

26일에 개막된 제4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가 9월 2일까지 평양시와 각 도의 체육관, 경기장, 체육공원들에서 진행된다.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기념 전국대학생체육경기대회 롱구, 배구, 탁구, 송구, 수영종목의 예선경기들이 원산시와 사리원시에서 벌어진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

청년운동사적관과 중앙계급교양관 참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청년강국건설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청년운동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총서홀에 들어선 그들은 먼저 청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림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사적관에 모셔진 절세위인들의 영상사진문헌들과 사적자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청년문제를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차대한 전략적인 문제로 내세우시고 청년운동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백두산청년대강국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펼쳐질수 있었음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무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대회참가자들은 또한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미제와 일제가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감행한 아수적만행들, 남조선괴뢰들과 계급적원쑤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뛴 범죄적책동을 발가놓는 교양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과 계급적원쑤들의 만고죄악을 단죄하는 력사의 고발장에서 그들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쌓이고쌓인 원한을 무자비한 징의의 총대로 반드시 결산하고야말 멸적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대회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복수의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들을 다계단으로 창조함으로써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영예를 빛내여갈 불타는 맹세가 어리여있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

음악무용이야기 《청춘의 자서전》 관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이 통정양대극장에서 음악무용이야기 《청춘의 자서전》을 관람하였다.

서장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로 시작된 음악무용이야기는 남성독창 《청춘의 자서전》, 무용 《서두수의 얼음을 헤치며》, 남성합창 《백두의 행군길 이어 우리는 간다》, 무용 《백두의 넋》, 녀성3중창과 무용 《그리움의 하얀 목배》, 남성독창과 무용 《생이란 무엇인가》, 무용 《단숨에》, 합창 《금방석》 등 다채로운 종목들로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열혈청춘들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일떠세운 과정을 감동깊게 형상하였다.

출연자들은 태양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조선혁명의 길고도 억센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백두산이 숭엄히 솟아 빛나는 백두대지에서 10여년간 애국의 피와 땀을 바치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성장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모습을 세련된 기교와 폐인 안삼불로 잘 보여주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신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 백두의 혹한속에서 청춘언제를 일떠세운 돌격대원들의 위훈을 감동깊게 형상한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당을 따르는 백두청춘들의 리없이 맑고 깨끗한 일편단심과 혁명임무수행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깊이 체득하였다.

출연자들은 산세험한 발전소건설장까지 찾아오시여 크나큰 믿음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청년강국의 주인들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청년들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백두대지에 청춘의 대기념비가 일떠서고 백두산영웅청년신화가 창조되였음을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었다.

어버이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억척불변의 철리를 거창한 실천으로 과시한 청년돌격대원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를 반영한 종목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음악무용이야기 《청춘의 자서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창조한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훌륭히 형상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제4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 개막

제4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가 보건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기다린 관심과 열의속에 개막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롱구, 배구, 탁구 등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평양체육관을 비롯한 평양시와 각 도의 체육관, 경기장, 체육공원들에서 진행되게 된다.

개막식이 26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와 관계부문, 보건부문의 일군들과 선수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강하국보건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차넘치는 속에 제4차 보건부문체육경기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 경기대회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하려는 보건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과 집단의 단결력, 지난 기간 대중체육활동을 통하여 련마한 체육기술을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참가자들이 경기마다에서 높은 체육기술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발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선수들의 분렬행진에 이어 고려의학과학원과 최경태내분비연구소 선수들사이의 남자배구경기가 있었다.

경기대회는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천리마시대를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온 전세대들의 청춘시절을 잊지 말자

시대의 앞장에서 내달린 젊은 천리마기수들

마치 력사의 재현인듯싶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으로 들끓는 뜻깊은 이해의 8월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청년대표들이 달려오는 모습은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장으로 천리마기수들이 구름같이 모여들던 56년전 8월의 못 잊을 광경을 방불케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들은 수십명인것이 아니라 수천수만명에 이르고있다고 못내 장하게 여기신 천리마기수들중 대부분이 오늘의 미더운 청년대표들과 같은 씩씩하고 용감한 젊은이들이 아니였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우리 당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입니다.》

우리 조국땅에 력사상 류례를 보지 못한 기적과 혁신이 나래치게 한 천리마운동이 시작되였을 때 누구들이 가장 열렬히 호응해나섰는가.

1959년 3월 8일 강선제강소(당시) 제강직장 제3호전기로의 진응원작업반원들은 작업반총회를 가지였다. 11명의 작업반원전원과 제강소로동자들, 진응원작업반원가족들을 포함한 전어떠명의 방청이 참가한 이 모임에서 그들은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쟁형태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발기하였다.

진응원작업반장이 보고를 한 다음 제일선참으로 연단에 달려나와 이 운동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토론한 사람이 바로 작업반의 막내이, 21살의 용해공 허인환동무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천리마운동에로 부른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는 불과 1년전에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전기로앞에 선 애젊은 용해공의 심장의 피를 랭렬 끓게 하였던것이다.

이보다 몇달 앞서 강추위가 몰아치는 양덕-신성천전기철도공사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지금 하루 두 사람이 겨우 한개의 전주구뎅이밖에 파지 못하고있소. 이것은 거부기걸음이요. 모두가 천리마를 타기 위하여 하루에 혼자서 두개씩 팝시다. 나는 래일부터 천리마민청돌격대를 조직할것을 제기하오.》

이것은 사실 공사에 참가한 한 민청원의 호소였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의 심정도 같았기에 천리마민청돌격대는 즉시에 무어졌다.

천리마민청돌격대원들은 삽을 일제히 공병삽모양으로 개조하였으며 물이 많이 슴배여나오는 구뎅이는 수동뽐프를 자체로 만들어 물을 푸면서 굴착하였다. 하여 그들은 직경 1m, 깊이 3.5m되는 구뎅이를 하루에 평균 혼자서 세개씩 팠으며 어떤 민청원들은 다섯개까지 파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는 돌격대의 투쟁정신은 온 공사장에 퍼져 양덕에서 신성천까지 780여개에 달하는 전주를 세우기 위한 굴착공사와 건식작업은 불과 두달동안에 끝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러오신 천리마, 바로 그것은 새것에 민감하고 약동하는 꿈과 기상, 불굴의 기백을 지닌 청춘의 배짱과 열정에 맞는것으로 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노도치는 젊은 힘으로 천리마운동에 앞장서 떨쳐나섰다.

강선의 용해공들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벌림것을 발기한데 이어 함흥기관구(당시)의 176호기관차의 한 청년작업반원들은 새로운 사회주의경쟁형태인 천리마청년작업반운동을 전개할것을 결의해나섰다. 지난 기간 1만km무사고붉은별쟁취운동을 비롯한 집단적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전해의 수송계획을 한건의 사고도 없이 123%로 초과수행하면서도 연료소비기준량에 비해 245t의 석탄을 절약하는 모범을 보인 그들이 천리마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대담하게 궐기한 이 운동은 온 나라의 수많은 청년작업반들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빠른 속도로 파급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김책공업대학(당시)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의 청년대학생들은 또 그들대로 천리마학급청호쟁취운동에 떨쳐나섰다. 상업봉사망의 처녀판매원들은 천리마매대청호쟁취운동에, 출판보도부문의 청년기자들은 천리마부서창조운동에 앞장섰다.

천리마를 탄 청년들의 기세와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1960년 5월 평양시에서는 천리마청년기수대회가 성대히 열렸다.

본궁비날론공장(당시)건설장의 한 로동자는 말했다.

《99%는 우리에게 있을수 없는 일이다. 100%는 수치다. 300%-그것은 수수하다. 500%, 1 000%쯤이면 좋다.》

천리마기수들의 목표는 이렇듯 높랗고 담대했다.

《새로운 비약에로!》, 《보수와 신비를 불사르자!》

당이 명백하게 가르친 목표를 향해 젊은 천리마기수들은 맹렬히 질주하였다. 신성불가침이라고 떠들던 기술의 요새도 짓뭉쳐나가는 천리마의 발굽아래서 절딴났다.

《승리58》형자동차가 보수주의자들의 넋태문을 짓부시며 나갔고 《천리마》호굴착기의 무쇠바가지는 신비주의자들의 미리우에 집채같은 흙더미를 들씌웠다. 불과 다섯달동안에 36만정보의 관개면적이 더 늘어나고 한해동안에 1만 3천대의 기계를 낳은 공작기계제끼치기운동이 벌어졌으며 지방마다 수많은 공장들이 삽시에 일떠섰다.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던 1960년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 공훈을 세운 로력혁신자들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바로 그 영웅들의 제일 첫자리에 이름이 새겨진 주인공은 23살의 처녀 김화실동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크지 않은 농촌리의 당총회를 지도하시며 몸소 찾아내신 천리마시대를 상징하는 인간개조의 선구자도 나어린 처녀선동원이였고 현지지도의 길에서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고 고무해주신 룡성의 로동계급도 2중천리마청년작업반장이였다.

유럽나라의 어느 한 작가는 《천리마-이것은 가장 발전된…현대화에로 진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스쯔드니크〉(인공위성)와 같은 속도의 상징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아시아의 한 나라의 중앙신문 1960년 3월 1일부는 우리 나라를 찾았던 그 나라 기자대표단성원의 방문기 《새형의 사회주의경쟁, 조선의 천리마작업반운동에 대하여》에서 《페킨대 회천공작기계공장(당시) 차순희천리마작업반에는 모두 11명이 있는데 평균나이는 21살이며 평균로동년한은 1년 8개월이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같은 애젊은 청년들이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청춘으로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창조하였으며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렸다.

천리마기수, 그들의 청춘시절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허명숙

고귀한 부름이 시작된 곳에서

나라의 첫 청년기업소의 탄생을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존엄높은 백두산청년강국의 주인들,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청년전위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송남.

수천수만년을 내려오면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땅이였다. 하늘높이 치솟은 명산의 준령들, 깊고깊은 골짜기와 울창한 수림…

대낮에도 어스름한 오솔길엔 산짐승들만 쏘다니고 고즈넉한 정적을 깨치는것이란 새들의 지저귐과 산천의 물소리뿐이였던 이 송남땅이 언제부터 잠을 깨기 시작했던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였다. 바로 그때 조국과 혁명의 크고작은 일감들과 멀고가까운 미래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는 우리 당의 집무탁에는 이 대고연한 원시림에 조국부강의 거창한 탄발을 마련하는 설계도도 함께 올랐다.

천리마시대 청년들은 당이 펼친 그 휘황한 설계도를 보람찬 삶의 전구에로 가는 또 하나의 화살표로 받아안았다. 1957년 6월 28일 지닉 송남청년탄광개발공사에 나선 청년들의 대회가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이 영예로운 사업에 첫 돌격대로 참가하는 수백명의 청년들과 이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평양시 근로청년들과 학생들이 수많이 참가하였다.

이어 각지에서 송남청년탄광개발공사에 참가할 청춘남녀들이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떠났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을 비롯하여 자기들의 방학기일을 바쳐 이 건설공사에 1개월간 참가할것을 탄원한 청년대학생들도 있었다.

탄광개발자들의 벅찬 진출과 투쟁으로 처녀지 송남땅이 잠을 깨기 시작했다.

청년들의 용맹과 위훈이 나래치는 탄광개발지로는 단 한해사이에 1만 300여명의 편지와 500여통의 전보가 와닿았다. 그중에는 김책제6중학교(당시) 소년단원들이 보낸 기발과 이런 편지구절도 있다.

《…그 어느 한개의 탄차에라도 좋으니 〈김책소년호〉라는 이름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 기발을 거기에 꽂아 힘차게 휘날리도록 하여주세요.》…

온 나라 인민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에 떠받들린 탄광개발자들은 로동도구만 메고온 삽과 곡괭이뿐, 기계설비도 없고 탄광개발과 관련한 아무런 경험도 기술도 없었지만 1년 남짓한 기간에 송전선공사, 철도인입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산업도로와 문화회관, 로동자합숙과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비롯하여 대자연속의 《청춘도시》를 손색없이 건설하였다. 천리마를 탄 기세로 계속 내달린 그들은 1957년 개발 첫해 굴진계획을 148%로 초과수행하였으며 2년간을 앞당겨 질좋은 탄맥을 찾아내고 어버이수령님께 승정의 보고를 드리였다.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히리띠를 졸라매고 혁명적대고조를 힘있게 일으켜가고있던 시기에 창조된 천리마시대 청년들의 위훈으로 하여 송남지구의 탄전은 《청년》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단 우리 나라의 첫 청년기업소로 력사의 고고성을 터치였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의 흐름속에 얼마나 많은 청년광산, 청년탄광, 청년발전소, 청년거리, 청년공원, 청년역, 청년련합기업소들이 이 땅의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는가.

조국의 방방곡곡 어디 가나 《청년》이라는 고귀한 부름이 울리고 천리마시대 청춘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청년들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청년》이란 이름으로 온 나라 강산을 뒤덮은 우리 조국!

바로 이것이 수백만의 청년대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대부대를 가진 청년강국임을 우리는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한다.

본사기자

피끓어라 청춘아, 불타라 심장아

기적의 75일

1958년 어느날, 해주-하성넓은철길공사장의 한 전투장에서 안주철도관리국(당시)의 소대원들은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닥쳤다. 땅속에서 예상치 않았던 물줄기가 솟구쳐올랐던것이다.

전투원들은 곧 물을 뽑기 위해 길이가 100m나 되는 물도랑을 파기 시작했다. 밤 11시경 소대장은 철수명령을 내렸다.

숙소에 이르러서도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한 소대원들은 새벽 3시경에 다시 현장으로 달려나갔다. 허나 그때는 소대장과 3명의 전투원들이 이미 도랑을 거의다 판 뒤였다. 그런 소대장에게 비발치듯 항의가 날아들었다. 그러고는 삽자루를 거머쥐고 물속에 뛰어드는 소대원들…

얼마후 다리기둥엔 이런 글발이 나붙었다.

《아무쌀리 공사를 앞당겨 끝내고 어버이수령님 계시는 평양으로 첫 렬차를 몰아가자!》

이런 불타는 일념에 의해 해주-하성넓은철길공사는 아홉달이나 앞당겨져 단 75일동안에 끝나는 기적이 창조되였던것이다.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온 《산울림》

1960년대에 공연의 첫막을 올린 경희극 《산울림》은 강원땅의 어느 한 산간마을이야기를 소재로 한것이다.

당의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알곡증산투쟁에 떨쳐나선 새 세대 청년들의 높은 리상과 투쟁의 메아리는 비단 두메의 한 산골에서만 울린것이 아니였다.

1964년 5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결산보고에서는 이렇게 지적되였다.

《당의 부름에 따라 농촌에 진출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우리의 농촌을 현대적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농촌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습니다. …전국도처에서 벌어진 관개공사와 치산치수사업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하였으며 …조국의 산야를 벽파 무르익는 황금산과 비단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국청년사회주의건설자대회이후에 10여만정보의 과수원과 17만여정보의 경제림을 조성하여놓았습니다.》

당이 벽을 울리면 우리는 강산을 울리자! 이것이 천리마시대 청춘들의 심장의 박동이였다.

청년들은 바다로!

동어건착선 〈민청호〉는 …새로운 과학적인 곰동어건착어로방법을 창안적용함으로써 상반년간에 63t의 곰동어를 잡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신포수산사업소내 4척의 〈민청호〉들은 지난 낙지잡이시기에 어군탐색사업을 강화함으로써…매일 200% 내지 300%의 어획성과를 내였다. …》

주체48(1959)년 6월 강원도수산부문당열성자회의에서 바다야말로 진취성이 강하고 정열에 불타는 청년들의 일터이라고, 파도를 헤치고 넓은 바다에 나가 사회주의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무진장한 무원을 개발하는것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교시는 온 나라 청년들의 가슴가슴을 더욱 높뛰게 하였다.

그후 수산부문으로 탄원하여 나선 각지의 청년들은 5개월동안에만 하여도 2만여명에 달하였다.

당의 부름에 불불을 가리랴, 이것이 바로 천리마시대 청춘들의 리상이고 실천이였다.

본사기자

수필

계승에 대한 생각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청년대표들을 만나던 과정에 우리는 하나의 사실에 주의를 돌리지 않을수 없었다.

대표들중 적지 않은 청년들이 천리마시대에 빛나는 위훈을 떨친 천리마기수들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이였다.

어제날 천리마휘장을 앞가슴에 빛내이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눈부신 홍장, 메달들을 번쩍이며 끝없는 감격에 북받쳐 영광의 대회장으로 달려왔을 자랑스러운 청년들.

그 장하고도 미더운 모습들앞에서 격정으로 달아오르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어지던 생각은 무엇이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대를 이어가며 수행되는 혁명위업을 중단없이 줄기차게 전진시키고 완성해나가자면 새세대 청년들이 전세대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선행세대가 이룩한 투쟁업적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이 땅의 세대는 바뀌여지고 시대도 변천하였다. 하지만 혁명의 전세대들이 남긴 숭고한 투쟁정신과 고귀한 업적은 얼마나 순결하게 계승되며 빛나고있는것인가.

수십년전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장에 펼쳐졌던 하나의 불멸할 화폭이 우리의 눈앞에 떠오른다.

《나도 오늘 천리마를 타는구만.》라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천리마휘장을 달으시던 위대한 수령님.

그날에 어버이수령님께 소박한 천리마휘장을 달아드리던 처녀는 가슴에 천리마휘장을 두개나 번쩍이던 정범한 조사공처녀 김화실동무였다. 해방전의 그 세월 녕변의 깊은 산촌에서 가난한 화전민의 딸로 태어나 비단옷은커녕 고무신 한켤레 신어보지 못하고 자란 그였다. 그러한 그가 로력영웅으로 첫 렬차를 몰아가자!》

이런 불타는 일념에 의해 해주-하성넓은철길공사는 아홉달이나 앞당겨져 단 75일동안에 끝나는 기적이 창조되였던것이다.

사공처녀였던 이 어머니가 너에게 하는 부탁이다.》

그날의 당부를 새겨안고 어머니의 슬걸과 체취가 스민 정깊은 일터를 지켜 수십여년, 김화실영웅의 딸도 직장장으로, 두 아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훌륭한 어머니로 되였고 천리마공장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만리마기수집단의 한 성원으로 오늘도 보람차고 긍지로운 인생길을 걷고있다.

어제날 《붉은 선동원》의 손녀가 할머니처럼 청년작업반의 선동원으로 일을 잘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대표로 참가한 사실 하나만 놓고도 이 땅의 계승의 년대가 어떻게 줄기차게 흘러가고있는지 잘 알수 있다.

만리마의 정신 세차게 나래치는 그 어느 일터, 그 어느 전투장에 가보아도 아버지, 어머니세대의 청춘시절을 더없는 자랑과 긍지로 안고 사는 이런 믿음직한 새 세대-충직한 계승자들의 대오가 있는것이다.

하거니 청년들이여, 우리모두 심장에 더욱 길이 새기자.

위대한 수령님 태워주신 천리마를 타고 이 땅에 사회주의의 만년초석을 반석같이 다지던 아버지, 어머니들의 가슴에 빛나던 천리마휘장은 결코 한가정의 추억의 유산만이 아님을.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 태워주신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쥔 그대들의 위훈속에 더욱더 빛날 가장 값높은 조국의 재부, 영원한 총정의 결정체임을!

본사기자 장정철

잊을수 없는 력사의 화폭들

해주-하성넓은철길공사장에서

대동강호안공사장에서

청춘의 푸른 꿈과 조국의 미래

최상의 특전, 무상의 영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청년중시사상은 청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주체79(1990)년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청년대학생들을 과학기술시대의 전위투사로 내세우시기 위해 대학생과학탐구상을 제정하도록 해주시였다.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학졸업은 분을 발표하신 뜻깊은 3월 18일을 계기로 학습과 과학탐구활동에서 모범적인 대학생들에게 대학생과학탐구상을 수여하는 모임이 년례화되게 되였다.

1991년 3월 240여명의 첫 대학생과학탐구상수상자들이 배출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십여개 대학의 60여개 학급이 대학생과학탐구상학급으로 되였고 1만 수천명의 우수한 대학생들이 대학생과학탐구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그들속에는 세계적인 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에서 련이어 우승하여 주체조선의 존엄을 높이 떨친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박사원생 리은성동무도 있다.

세상에는 나라마다 대학생들에게 주는 상장과 메달이 있지만 대학생과학탐구상과 같이 숭고한 뜻과 은정이 깃든 국가적인 표창을 주는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이것은 오직 청년중시정치의 빛발 넘쳐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때음의 꿈을 활짝 꽃피워가고있는 우리 청년대학생들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최상의 특전, 무상의 영광인것이다.

해빛은 거목을 자래운다

일찌기 잡지 《청년문학》의 첫 애독자가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5월 17일 《청년문학》 500호 발행과 관련한 보고를 받으시고 잡지가 우리 청년들과 문학통신원들이 즐겨 기다리는 작가후비양성의 좋은 교과서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그토록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수한 문학작품을 발표한 문학통신원들에게 청년문학상을 수여하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 사랑속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대원 곽금철동무도 청년문학상수상자로 자라났다. 그는 발전소건설의 보람찬 투쟁속에서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려 지난해에도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대원들의 투쟁을 반영한 단편소설 《1등》을 창작하여 또다시 청년문학상을 수여받는 영예를 지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0월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찾아주시고 곽금철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모두를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로 내세워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이렇듯 날로 커만 가는 청년중시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연 1000여명의 청년들이 청년문학상수상자로 자라나 존엄높은 청년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다.

그렇다.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쳐주는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따사롭게 비껴흐르고있으니 어찌 우리 조국이 청년박사, 젊음에 넘치는 쟁쟁한 인재가 많은 나라로 전변되지 않을수 있으며 과학기술강국, 사회주의문명국으로 억세게 치달아오르지 않을수 있겠는가.

정영철

백두대지와 더불어 길이 빛날 영웅적위훈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에서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무대로서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치며 백두산기슭에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우뚝 일떠세워 온 나라를 격동시킨 백두청춘들의 불멸의 위훈을 전하는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맞으며 이곳으로는 수많은 참관자들이 물결쳐흐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계시였던 발전소의 전망대가 위치한 곳에 자리잡고있는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은 모두 3개 호실로 되여있다.

중앙홀에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뜻깊은 사진문헌들을 우러르며 참관자들은 외국방문의 길에서 겹쌓인 피로도 무심사이 없이 머나먼 발전소건설장에 찾아오시여 돌격대원들을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며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고 청년들의 발걸음속도가 높아야 조국의 전진속도도 빨라진다고, 당은 청년들을 굳게 믿으며 청년들이 강성국가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이 당중앙의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면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믿음과 크나큰 사랑을 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전시관의 1호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소건설을 통제로 맡겨주시고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령도업적과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 고무되여 떨쳐나선 청년들의 투쟁내용이 전시되여있다.

전시된 하나하나의 자료마다에서 령하 30~40℃의 강추위가 계속되는 엄혹한 자연환경과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방대한 발전소건설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해낼 결심을 안고 혁명적군인정신,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한 백두청춘들의 위훈의 자욱자욱이 그대로 어려온다. 보통의 의지로는 빈발구도 끌고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강추위속에서 청년들은 땅크나 비행기로 발전설비들을 운반해달라고 손을 내민것이 아니라 함마와 정대, 곡괭이를 가지고 얼음길을 까고 언땅을 파헤쳤으며 석비레를 마대로 메날라 길우에 뿌리면서 그길로 대형화물자동차와 련결대차로 이어진 산잡은 수송대를 전진시켰다. 련결대차우에서 육중한 회전자가 균형을 잃어 그만 산비탈로 미끄러져 눈무지속에 곤두박히고말았을 때에도 청년들은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 따라서 모진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맞받아나가며 혈전만리를 헤쳐온 항일유격대원들의 정신세계가 우리를 부른다고,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본다고 웨치며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끝끝내 발전설비를 운반한 돌격대원들의 그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는 전시관을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커다란 감동과 흥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2호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산이고 사랑의 젖줄기이며 조국의 만년제부인 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에서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과 함께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하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당이 제시한 영예로운 과업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안고 복동처 내달린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자료들이 생동하게 전시되여있다. 투쟁자료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지사로를 고지우에 올려놓고 원쑤미제를 족친 전화의 용사들처럼 혼합기를 언제라임장가까이에 들어앉히고 빈몸으로 오르자고 해도 다리가 떨리는 그곳에 하루에도 골재를 지고 수없이 오르고오르며 혼자서 매일 어려이나 운반한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을 뜨겁게 전하고있다.

우리가 돌고나가는 저앞에 완공의 환희가 있고 환하게 웃으시며 기뻐하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것만 같아 굴이 완공되기 전까지 청년돌격대원들 누구나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돌진했다는 그 나날의 투쟁을 생동하게 형상한 한복의 그림이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적투쟁기풍과 생활기풍, 열정과 랑만을 따라배워 선군청년문화를 활짝 꽃피운 백두청춘들의 높은 정신세계도 감동깊게 어려있는 전시물이다.

전시관의 3호실에는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건설중에 있는 교양실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으로 명명해주시며 백두청춘들의 위훈을 영광의 단상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전하는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참관자들은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을 돌아보며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우리 청년들이 어떤 정신을 안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했는가에 대하여 가슴후덥게 체험하고있으며 백두청춘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돌격정신을 따라배워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가 될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본사기자 지혁철

민족의 흥망과 인류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있다

일부 나라와 지역들에서 복잡한 사태들이 빚어지고있다. 사회적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고 물리적충돌이 지속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구실로 《평화와 인권보장》을 운운하며 공공연한 내정간섭과 무력침공을 감행하고있다.

사태는 더욱 험악해지고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과 존엄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인민들은 살길을 찾아 다른 나라로 피난의 길에 오르고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져지게 된 주요원인의 하나는 해당 나라와 민족들이 지난 시기 청년문제를 홀시하면서 이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은데도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앞에 시련이 닥쳐왔을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사회의 골칫거리로 되었다.

청년들이 시대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자각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것은 오늘 매개 나라와 민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며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따라 민족의 흥망과 인류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이고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 어느 나라에서나 청년들이 제스스로 미래의 주인공으로, 활력있는 부대로 자라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 무엇이나 저절로 이루어질수 없는 법이다. 꿈을 들인것만큼 송신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

청년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자주를 지향하는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청년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힘을 넣을 때 청년들이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훌륭한 기둥감으로 자라날수 있으며 그만큼 인류의 미래도 밝아지게 된다. 하지만 청년문제를 홀시하면 그들은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게 된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동유럽나라들에서 그렇게 되였다. 이 나라들은 경제건설에만 치중하면서 청년들을 교양하고 준비시키는 사업을 소홀히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으로 청년들속에서 사상정신적와해와 변질이 생기고 일하기 싫어하고 건달을 부리기 좋아하던자들이 공공연히 자본주의를 찬양하고 제도를 비난하였지만 경제건설만 잘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면서 각성을 높이지 않았다. 서방식《자유》와 《민주주의》에 물젖은 청년들은 나중에는 제도자체를 반대하는데까지 나섰다. 결과는 어떻게 되였는가.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주의제도자체를 망쳐먹고말았다.

분쟁이 지속되고있는 중동나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지역 나라들의 일부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조국을 배반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였다. 그들은 몇푼의 돈을 위해 제국주의자들에게 정보를 팔아먹었다. 그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은 무력침공을 감행하고 해당 나라를 폐허로 만들고 정권을 전복하였다.

이러한 실례는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에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청년문제가 저절로 해결될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것이다. 세계를 제패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이 청년들을 첫번째 과녁으로 정하고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것은 곧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것과 같은 자멸의 길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써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퍼뜨려 청년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어 저들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려 하고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신적불구는 육체적불구보다 더 큰 불행이며 자주의식이 마비된 정신적불구자는 사회적인간으로서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다. 전도양양한 청년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은 지난 시기 청년들을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만든 파시스트무리들의 죄행보다 더 큰 범죄행위이다.

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현시대 청년들이 사상과 정견,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단합된 력량으로 맞서싸워야 할 주되는 투쟁대상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

청년들이 인류자주위업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투쟁하는가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

청년들은 력사를 전진시키고 세계를 변혁해나가는 투쟁에서 가장 활력있는 위력한 력량이다. 낡은것을 반대하고 일단 결심한 일은 주저를 모르고 패기와 정열에 넘쳐 대담하게 해제끼는것은 청년들의 고유한 특질이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있는 청년들이 떨쳐나서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

력사를 돌이켜보아도 시대의 앞길을 개척하는데서 청년들이 언제나 앞장에 섰으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다. 지난 세기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손에 총을 잡고 강도 일제와 싸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였으며 아시아를 제패하려던 일제의 야망을 짓부셔버렸다.

미제의 무력침공으로 우리 공화국이 엄중한 위험에 처하였을 때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청춘을 서슴없이 바쳐 영웅적으로 싸움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것도 바로 청년들이였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그 이후에도 우리 청년들은 자주, 자립, 자위가 실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청춘의 힘과 지혜, 고귀한 땀을 아낌없이 바쳤으며 그들의 이러한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반제자주와 세계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루로 우뚝 솟아올랐다.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데서 청년들이 큰일을 할수 있다는것은 다른 나라 력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피흘리며 싸운 사람들도 청년들이였고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열심히 배우며 일한 사람들도 청년들이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자주권을 되찾고 진보적발전을 이룩하고있는것도 청년들이 흘리는 피와 땀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인류력사는 청년들이 떨쳐나설 때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고 자주적이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인류의 념원이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문제는 청년들이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사명을 옳게 자각하고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있다.

무엇보다먼저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사람의 사상의식에는 공백이 있을수 없다.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상이 아니면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의 영향을 받기마련이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사상교양사업을 늦춘다면 청년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의 영향을 쉽게 받을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정치생활에 무관심하게 되며 안일해이해지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나중에는 국가의 법과 사회질서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불량배, 타락분자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투를 막는것은 나라의 운명,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부르죠아사상문화가 청년들을 정신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게 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막기 위한 교양사업을 하지 않는것은 범죄이며 제스스로가 화를 청하는것이나 같다.

부르죠아출판선전물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막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파급속도가 빠른 출판선전물에 기대를 걸고 이를 통해 저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들이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때문에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부르죠아사상문화선전물들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기의 고유한 민족문화와 전통으로 사람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자기의것으로 청년들을 무장시키는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부르죠아사상문화가 침습해들어올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는 자주, 평화,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통의 원쑤이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이 지구상에는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존재하게 되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화된 새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념원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

세계 진보적청년들은 사상과 신앙,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단합된 력량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전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청년들이 높은 창조정신을 가지고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 높은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여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고 문명하고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창조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시대와 인류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하도록 하자면 국제적 친선과 단결의 뉴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한다면 못해낼 일이란 없다. 단결하여 어깨겯고 나아가는 자주시대 청년들의 힘찬 대오는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지 못한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며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산교과서이다.

우리 당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중시를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왔다. 청년문제를 혁명의 전도,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청년들을 키우는데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을 들이였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청년문제해결의 근본으로 틀어쥐고 청년교양에 힘을 넣었다.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급지급직한 일감들을 맡겨 실천투쟁속에서 청년들을 역세계 키웠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청년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역세계 자라났다.

우리 청년들은 당의 권위를 앞장에서 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믿음직한 전위대, 창조의 거인들로 튼튼히 준비되였다.

선군혁명의 제1선참호를 지켜선 인민군대도 청년군인집단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구들마다에서 위훈을 떨치고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선봉대, 돌격대도 청년들이다. 우리 청년들이 강하기에 우리 당과 국가, 군대가 강하고 우리는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다. 그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세계적인 난문제로 되고있는 청년문제, 혁명의 계승자문제를 빛나게 해결한것은 우리 당의 긍지이고 커다란 승리이다.

청년강국을 건설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활력있고 희망에 넘친 주체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서의 그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다.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혁명의 투쟁성과와 경험은 청년중시에 나라와 민족의 양양한 전도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총진군대오의 전렬에 내세워 사회주의강국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중시, 군대중시와 함께 청년중시를 확고한 전략으로, 제일가는 무기로 틀어쥐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매진할것이며 이 땅우에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리 학 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온 겨레는 무엄한 악담질을 일삼는 청와대 마녀를 단호히 죽탕쳐 매장해버려야 한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담화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소식이 세계를 진감시키고있는 가운데 이를 걸고들며 반공화국압박분위기를 조장시켜보려는 불순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

미국과 그에 편승한 일부 나라들에서 우리의 시험발사를 걸고드는 발언들이 튀여나오는가 하면 25일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긴급협의》놀음까지 벌어졌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그 무슨 《결의위반》이니 뭐니 하고 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상정시킨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악랄한 도발이다.

불과 몇달전에 사상 최대규모의 핵전략자산들과 병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평양점령》을 공공연히 떠들었던 미국이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하고있다. 이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그러나 미국의 국악무도한 핵위협공갈은 도리여 우리의 핵공격능력을 시시각각으로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고 성과적으로 진행된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는 력사의 시련과 원쑤들의 온갖 도전속에서도 억척같이 다지고다져온 주체조선의 막강한 국력과 용솟음친 힘의 거대한 폭발이며 일대 시위이다.

이번에 발사한 전략잠수함 탄도탄의 시험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핵공격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섰으며 미국이 아무리 부인해도 미국본토와 대평양작전지대는 이제 우리 손아귀에 확실하게 쥐어져있다는것이 현실로 증명되였다.

미국의 핵패권에 맞설수 있는 실질적수단을 다 갖춘 조건에서 일단 기회만 조성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의의 철마치로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내려쳐 부정의의 못이 다시는 솟아나지 못하게 할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걸고드는것과 같은 경거망동은 자멸의 길을 재촉할뿐이며 분노에 찬 우리의 섬멸적인 타격을 피할수 있는 최상의 방도는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 자숙하는것이다.

만일 미국이 우리의 엄숙한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려드는 경우 우리는 당당한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 계단으로 계속 보여줄것이다.

주체105(2016)년 8월 26일
평 양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추고 최후승리의 령마루를 향하여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은 온 겨레와 전세계를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의 일대 과시로 되는 이번 성공으로 우리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안녕은 물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되게 되였으며 이 땅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수치스러운 과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되였다.

력사의 시련과 원쑤들의 온갖 도전속에서도 억척같이 다지고다져온 주체조선의 막강한 국력과 용솟음친 힘의 장쾌한 시위인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강대한 민족을 갈망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대경사이며 특대사변이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패당은 이 민족사적폐거에 기절초풍하여 미친개처럼 동족을 헐뜯으며 지랄발광하고있다.

지난 24일 우리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소식을 듣자마자 완전히 얼혼이 나가 괴뢰군전방부대에 나타난 박근혜는 《북이 새벽에 잠수함을 리용한 전략잠수함 탄도미싸일을 발사했다.》느니, 《북의 핵과 미싸일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아부제기를 치며 그 무슨 《단호한 대응》을 떠들어댔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억도가 그 누구의 《경제난》이니, 《동요》니 하는 잠꼬대같은 나발을 불어대는것도 성차지 않아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걸고드는 특대형도발까지 해대며 정신병자처럼 놀아댄것이다.

우리의 존엄과 제재에 대하여 쥐뿔도 아는것이 없는 무지무능한 억도가 감히 《비상식적의사결정체계》요 뭐요 하며 악의에 찬 궤변을 늘어놓은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서 천벌맞을 대역죄이다.

지금 백두산혁명강군은 우리의 눈부신 태양에 감히 그늘을 지어보려고 날뛰는 청와대미친년을 씨도 없이 죽탕쳐버릴 멸적의 의지를 안고 청와대안방부터 들부신 최후명령의 시각을 기다리고있다.

이미 박근혜년은 허바다를 함부로 놀려대며 쉽세없이 내뱉은 독설로 하여 력사와 민족의 사형선고를 받은지 오래다.

대문밖이 저승길인 박근혜년이 제 체지도 모르고 밤낮 《북붕괴》를 고대하는 개꿈만 꾸며 《균렬조짐》이니, 《고립심화》니 뭐니 하는 헛나발을 불어대고있으니 이 얼마나 얼빠진 정신병자인가.

오강뚜껑같은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무엄한 악설을 짖어댄 박근혜억도의 추태는 이미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이제는 더이상 제어할수 없는 말기증상에 이르렀다는것이 세인의 일치한 평이다.

원래 박근혜로 말하면 남조선인민들이 평한바와 같이 제 애비로부터 《세상을 거꾸로 보는 눈》, 《가장 못된것만 골라듣는 귀》,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망탕 씨벌대는 혀》, 《사유가 고장난 썩고 문드러진 뇌》를 그대로 유전받고 애비의 본을 따보려고 동족대결과 파쑈독재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희세의 악녀이다.

지금까지 박근혜억도가 권력을 타고앉아 한것이란 오로지 미국을 하내비로 섬기며 동족을 해치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은 매국노짓밖에 없다.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과 지향에 악랄하게 도전하여 오늘과 같은 참담한 대결국면을 초래하게 만든것도 박근혜억도이며 미국상전의 사타구니에 붙어 《북핵위협》을 떠들며 동족에 대한 부질없는 제재압박에 미친듯이 돌아치고있는 쌀개빠진 억적도 청와대악녀이다.

내외가 한결같이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를 끌어들이기 위해 발광하는 박근혜때문에 온 남조선땅은 일대 수라장으로 화하고 억도는 말그대로 과멸의 벼랑끝에 놓여있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가 사리도 분별할줄 모르고 주책없이 놀아대는 박근혜년을 《치매걸린 대통령》이라고 저주하면서 인파로 화를 불러들이는 화냥년을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고 비난을 퍼붓겠는가.

이러한 천하의 악당년이 감히 이제는 하늘에 삿대질하는 무례무도한 나발도 서슴없이 불어대고있으니 박근혜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이 편안할수 없고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비천한 사고와 무지로 《대통령》은 고사하고 멍텅구리취급을 당하고있는 억도가 제 뜻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지랄발광할수록 제년의 명줄이 끊어질 시각만을 재촉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가는 곳마다 민족내부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민족의 미래우에 핵전쟁의 불행과 재난을 들씌우려고 날뛰다 못해 세치 혀를 쉽세없이 날름거리며 천추만대의 악행을 저지르고있는 박근혜년의 숨통을 하루빨리 끊어버려야 한다는것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민족사의 명령이다.

박근혜억도는 요사스러운 궤변과 대결망동으로 과멸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할수록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속에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온 겨레는 만고역적 박근혜억도를 단호히 죽탕쳐 매장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을 반드시 앞당겨올것이다.

주체105(2016)년 8월 26일
평 양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고발하는 소녀상건립운동

남조선에서 계속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일제의 특대형반인륜적죄악인 성노예범죄를 고발하는 소녀상건립운동이 확대되고있다. 지난 9일 경기도 군포시에 30번째로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 조국해방 71돐을 계기로 남조선 각지에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형상한 소녀상이 세워졌다. 14일 전라남도 무안군에, 15일 하루동안에는 남조선의 4곳에 소녀상이 설치되였다. 15일 서울 구로구의 소녀상앞에서 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소녀상에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고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만이 깃들게 하기 위한 념원이 담겨져있다고 말하였다.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고발하는 소녀상은 이날 서울 동작구, 경기도 안산, 충청남도 론산에도 세워졌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에 핵참화를 몰아오는 침략전쟁연습을 당장 그만두라,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특등매국노 박근혜역적을 단죄규탄한다

재일조선청년항의단이 일본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괴뢰대사관에 대한 항의투쟁 전개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와 특등매국노 박근혜패당이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한것과 관련하여 24일 재일조선청년항의단이 일본주재 미국대사관과 남조선괴뢰대사관에 대한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일본키동경찰 장갑차량들과 무장경찰들이 미국대사관앞에 진을 치고 항의단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섰다.

이에 맞서 항의단성원 수십명이 돌격대를 무어 경찰의 저지를 뚫고 미국대사관앞에 진출하였다.

그들은 《조선반도에 핵참화를 몰아오는 침략전쟁연습을 당장 그만두라!》, 《정화의 파괴자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물러가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고 평화협정체결에 나서라!》,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즉시 걷어치우라!》, 《분단의 원흉, 통일을 가로막는 침략자 미제를 단죄규탄한다!》, 《남조선을 아시아지배의 핵전초기지로 만들려는 싸드배치를 즉시 철회하라!》 등의 현수막과 프랑카드들을 들고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고 횡포한 침략전쟁연습을 강행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을 규탄하였다.

다른 항의단성원들도 경찰의 포위속에서 굴함없이 구호들을 힘차게 웨치면서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터뜨렸다.

이어 항의단은 남조선괴뢰대사관에 대한 항의투쟁에 나섰다.

대사관앞에 배치된 수백명의 경찰들이 항의단을 둘러싸고 위협을 가하였지만 재일조선청년들의 완강한 투쟁기세를 당해내지 못하였다.

괴뢰대사관 정문앞까지 들진한 항의단의 전체 성원들은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특등매국노 박근혜역적을 단죄하여 분노의 함성을 터치였다.

그들은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쟁전초기지로 섬겨바치는 싸드배치를 즉시 철회하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친미친일시대매국행위와 〈흡수통일〉망동을 걷어치우라!》, 《북, 남, 해외 련석회의를 가로막는 반통일책동을 그만두라!》,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합의〉를 철회하고 전민족에게 사죄하라!》, 《집단랍치한 공화국녀성들을 즉시 조국의 품에 돌려보내라!》 등의 현수막과 프랑카드들을 들고 구호들을 웨치며 남조선역적패당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항의단단장이 박근혜만고역적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재일조선청년들의 의지를 담은 항의문을 망독하고 괴뢰대사관에 들이대였다.

이날의 과감한 투쟁은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의 핵전쟁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을 수호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전체 재일조선청년들의 애족애국의 의지를 크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즉시 그만두라!
○ 무조건 즉시 송환하라!

《박근혜사당》으로 전락된 매국집단

남조선에서 《새누리당》이라고 하면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의 앞장에서 열을 올리는 국우보수세력의 총본산, 각종 부정부문사건들이 쉴새없이 터져나오는 온갖 부패범죄의 진렬장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새누리당》에 수많은 오명을 붙여주면서 증오심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더러운 반역당에 최근에는 《박근혜사당》이라는 오명이 또 하나 붙었다.

그럴수밖에 없다. 얼마전 《새누리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그 무슨 전당대회라는것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친박계의 중진인물이며 《박심》으로도 불리우는 리정현이 《새누리당》의 새 대표로 당선되였다.

《새누리당》의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당한 대참패의 후유증을 가시고 당대표를 선출하여 다음기 《대통령》선거를 치름으로써 보수《정권》을 연장하는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였다.

새 당대표가 다음해에 있게 되는 《대통령》선거문제를 다루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새누리당》내의 친박계와 비박계는 전당대회전부터 치렬한 개싸움을 벌리였다. 이로 하여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는 시작부터 치렬한 양상을 띠고 진행되였다.

《새누리당》의 각 계파들은 대표자리를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많은 돈을 뿌리였으며 각종 불법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특히 당대표선출에 신경을 곤두세운 박근혜억도는 자기 졸개를 지원하기 위해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현장에까지 나타나 《하나가 되여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댔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진흙탕보다 더 지저분해진 전당대회》라고 조소하였다.

이런 너절한 권력싸움판에서 친박계가 우세를 차지하고 박근혜억도의 최측근인 리정현이 당대표로 당선됨으로써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억도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되고말았다.

리정현으로 말하면 지난 10여년간 박근혜억도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졸개노릇을 해온것으로 하여 친박계안에서도 《박근혜의 입》으로 불리우고있는 억도의 총건, 둘도 없는 노복이라고 한다.

이자는 박근혜억도의 집권이후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노릇을 하면서 억도의 반역정책실현에 기승을 부리였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나고 보수당국의 무능, 무책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들이 도처에서 터져나오자 당황망조한 이자는 《당국에 대한 부당한 비판부터 자제》하라고 으름장을 놓는 한편 언론사들이 참사와 관련한 보도를 청와대의 구미에 맞게 하라고 거듭 압력을 가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리정현이야말로 청와대안방주인의 둘도 없는 하수인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박근혜억도의 손발노릇을 하는것이 몸에 푹 배인자이기에 리정현은 당대표로 선출되자마자 《〈대통령〉과 맞서고 〈정부〉에 맞서는것이 마치 정의인것처럼 인식한다면 여당의원자격이 없다.》, 《여당이 야당과 똑같이 〈대통령〉과 〈정부〉를 대한다면 여당의 본분과 지위를 포기한것이다.》라고 피대를 돋구었다.

리정현은 제과를 따지지 않겠다고 귀맛좋은 소리를 늘어놓으면서도 최경환과 서청원을 비롯한 친박계거물들의 《국회》의원선거《공천》개입사건에 대한 비박계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교활하게 놀아대면서 비박계의 목을 조이기 위한 올가미도 하나둘 마련하고있다.

리정현의 이러한 처사에 흡족해진 박근혜억도는 얼마전 《새누리당》의 새 우두머리들을 청와대에 청해들여 값비싼 음식들을 차리고 먹자판을 벌려놓아 각계의 비난을 자아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2년전 김무성이 《새누리당》대표로 당선되였을 당시 박근혜가 취한 행동과 이번의 청와대에서의 먹자판을 비교하면서 김무성이 《먹는것으로 차별당해 매우 서러웠을것이다.》라고 억도를 비꼬았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박근혜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있는 리정현이 공시업무 첫날부터 《적극적인 청와대편들기를 하고있다.》, 《골수친박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있다.》고 하면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입김에 완전히 놀아나고 이로 하여 여야관계도 긴장될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

박근혜억도의 심복졸개가 키잡이를 하고있는 《새누리당》이 억도의 반역정책실현에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박근혜억도가 휘락려락하는 《새누리당》의 운명은 이미 과멸의 나락에 깊숙이 빠진 억도의 운명과 결코 다르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ㄱ-61137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말소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6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독자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